

Ver. 9.0

기담

Odd Doctors

제작 _ 영화사 도로시
각색&감독 _ 정가형제 Jung Bros.

등 장 인 물

김 인영(金田仁玲)

28세. 외과의 겸 해부학 교수

김 동원(金田東元)

33세. 인영의 남편. 외과의 겸 정신과 교수

이수인(李秀仁)

26세. 정신과 전문의

박 진혁(朴眞赫)

22세. 의대실습생 2년차 / 현재 60세. 의대교수

병원 원장

50세. 여자. 안생병원(安生病院) 원장

아키야마(秋山) 소좌

43세. 일본군 헌병대 소좌

아오이(安生)

17세. 원장의 딸. 교복소녀

아사코(朝子)

10세. 교통사고 환자

고 외

진혁의 딸

실습생들, 간호조장, 간호원들, 일본인 승려

아사코 엄마, 아사코 새 아빠, 백발 노파

일본군 중위, 일본군들, 소년병

등등

1. 강의실 (1979년 - 낮)

영사기 소리와 함께 어두운 영사막에 빛이 닿으면, 입자가 거친 흑백 기록 영화가 떠오른다.
소리 없는 화면 속에 등장하는, 침대에 걸터앉은 황색 군복을 입은 일본군 대장
걱정스런 표정으로 침대 주변에 서 있는 장교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일본군 대장, 위엄 있는 풍모다
갑자기 흰색 무지 상태로 바뀌는 화면.
이어, 영화용 조명기 아래 수술대에 누워있는 대장을 내려다보는 의사들
수술실 타일바닥 작은 구멍들에서 흘러나오는 물.
한 명의 의사가 메스를 들고 대장의 두피를 절개한다.
메스를 따라 붉은 선이 맺히는 대장의 머리.
꽃망울이 터지듯 메스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짝 벌어지는 두피.
순간 절개한 두피에서 쏟아지는 시뻘건 피가 허연 두개골을 적신다.
물 고인 타일바닥에서 반사된 물그림자가 의사의 얼굴에 기묘한 파형을 만들어내며 어른거린다
허영게 드러난 대장의 두개골 위로 작은 틈이 좌우로 움직이고, 또 다른 의사가 전기 소각기를 들어 피를 쏟
고 있는 두피를 지진다.
대장의 머리 뒤로 활활 쏟아져 흘러내리는 피, 대장은 동공이 풀린 채 미동도 없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의사의 손놀림에 따라 힘없이 흔들거릴 뿐이다.

잠시 후 -

영사기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온 필름 끝자락이 헛돌며 영사기를 때린다

탁탁탁탁....

스크린에 부딪히는 백색 화면.

커다란 커튼이 찢히지며 밝아지는 계단식 강의실.

자막 - '1979년'

영사막 옆에서 교단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박진혁 교수(60세, 남자), 머리 전체가 하얗게 섰다.
상중인지 가슴에는 흰색 리본이 달려있다.

박 교수

이 자료 필름은 일천구백삼십구 년도에

일본 육군 장성이던 히라이 대장의 뇌수술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수술을 집도하신 김동원 선생은 당시 일본 의학계에서도 존경받았던 최고의 신경외과 권위자셨죠.

계단식 강의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

박 교수

(손목시계를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 시험 때 먹으면 영락없이 권총 차게 된다고 데모 나간 친구들한테 전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2. 교수실 (낮)

책상 앞에 앉아 수화기를 들고 있는 박 교수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인다

박 교수

학적과장 좀 부탁해요...

...응, 아깝다. 점심 같이 하자.

...벌써? 바쁜가부네...

...저녁때? 에이 뭐 하러 와.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지. 오지 마.

...고집은...

...책상 위?

(책상 위 서류봉투를 발견하고 열어보며)

...응, 이게 뭐냐?

봉투 속에서 나오는 낡은 앨범, 곁에 흐릿하게 '安生病院, 昭和十六年~' 이라고 쓰여 있다.

박 교수

...어! 이거 진짜 내 옛날 앨범이네...

앨범을 뒤적이는 박 교수.

색 바랜 흑백 사진이 꽃혀있는 앨범이 한 장씩 넘어간다.

박 교수

...안생 병원에서 나왔대?

야- 이게 어떻게 안직까지 있었지?

(앨범을 뒤적이다 말고)

...언제 허문다고 했드라...?

병원 말이야...

...오늘 저녁...음...내일부터 주말이라 그렇구나.

...어, 그래. 이따 집에서 보자.

수화기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창 밖을 내다보는 박 교수.

3. 교수회관 복도 (낮)

채광이 안 되어 어두운 실내를 네댓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가방을 든 박 교수, 교수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

김 교수

(소리)

박 교수!

박 교수, 뒤돌아보면 풍을 맞았는지 지팡이에 의지해 절뚝거리며 힘겹게 다가오는 김 교수.

박 교수

아니, 선배님...언제 퇴원하셨어요?

김 교수

(허가 굳은 소리로)

...어제.

박 교수

(안쓰러운 표정으로 김 교수를 훑어보며)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김 교수

괜찮긴...

(지팡이를 들었다 놓으며)

이젠 이눔허구 정붙이구 살아이지.

그나저나 제수씨 장례식에 못 가봐서...내, 박 교수한테 여간 미안한 게 아니야.

박 교수

...맘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김 교수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하던 분이 어찌 그리 갑자기 가셨누....

대답대신 애써 미소로 답하는 박 교수의 표정에 쓸쓸함이 묻어있다.

4. 교정 (오후)

병원 건물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장막 앞에서 현장 소장과의 얘기를 나누는 박 교수.

그 앞으로 유신철페 문구가 씌어진 플래카드를 어깨에 걸쳐 메고 지나가는 50여명의 대학생들

현장 소장

(들고 있던 후레쉬를 건네며)

....이거 들고 갔다 오세요

(장난스럽게)

두고 온 거 있으면 죄다 갖고 나오십시오.

오늘 저녁 지나면 다 짝이빠입니다....

후레쉬를 든 박 교수, 고개를 끄덕인다.

5. 장막 안 인생병원 (오후)

돌계단 사이를 비집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일제시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인생병원 외관.

과거 생기 넘쳤을 것 같은 모습을 뒤로 한 채 잡초와 먼지로 뒤덮인 건물 외관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건물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정문 앞 돌계단을 오르는 박 교수.

정문 밖에 서서 긴장한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는 박 교수.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기분 나쁜 소리가 복도 끝 어둠 저편에서 들려온다

뭔가를 망설이는 듯 한동안 어둠에 휩싸인 복도를 응시하던 박 교수, 후레쉬를 켜고 어둠을 향해 조심스럽게 무거운 발걸음을 뗀다.

6. 박 교수의 집, 식탁 (밤)

'딸강딸강' 소리를 내며 커피를 짓고 있는 박 교수.

딸

(소리)

쓸쓸하세요?

박 교수

(고개를 들며)

....응?

(쓴웃음을 지으며)

쓸쓸하긴....

박 교수 옆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가는 교복 입은 소녀, 손녀인 듯 보인다

딸

(사과를 꺾으며)

아빠....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새엄마....아빠랑 재혼하시기 전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잖아요.

딸이 앉은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쓸고 지나가는 교복 소녀, 딸 옆에 앉는다
교복 소녀가 앉아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는 딸.

박 교수

....그치만, 니 엄마도 그렇고...

딸

엄마는 나 낳다가 돌아가신 거구, 새엄마는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 탓 아니라고요....

박 교수

....둘 다 나랑 산지 일 년도 못돼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렇지....

딸

아빠.

말문을 닫는 박 교수.

7. 박 교수의 집, 현관 (밤)

박 교수, 현관 앞에 서서 구두에 발이 잘 안 들어가는지 구두주걱을 들고 끄꿍대는 딸을 내려다본다.
마루에 걸터앉아 엄마가 구두 신기를 기다리는 듯한 교복 소녀.

딸

(몸을 구부린 채)

....아빠, 제가 시택 내려갔다가 일요일에 올라오니까
모래 저녁에 다시 들를게요, 반찬 가지고....

박 교수

왜 자주 와? 정 서방한테 미안하게시리....
식모 아줌마 부르면 된다니까.

딸, 상기된 얼굴로 일어서서 긴 숨을 몰아쉰다.

딸

경해랑 같이 모래 또 올게요.

물끄러미 서서 딸을 내려다보는 박 교수.

시간 경과.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현관이 쓸쓸해 보인다.

박 교수의 나레이션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이었다.

...그 날 저녁, 나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8. 박 교수의 집, 침실 (밤)

어두운 방 안, 스탠드만 켜져 있는 침대 위의 박 교수가 베개를 등에 받치고 앉아 있다.

무릎에 펼쳐져 있는 낡은 앨범을 보고 있는 듯하지만 미동이 없다.

스탠드 불빛 위 쪽 어둠 속, 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한 채 죽어있는 박 교수의 얼굴

무릎에 펼쳐진 앨범엔 안생병원 앞에서 찍은 젊은 박 교수의 기념사진들이 꽂혀 있다

박 교수의 나레이션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다.

그렇게 물어버리면 될 거라 믿었다.

나름대로 순란한 삶이라 여기고 살았건만....

과거에 물에 젖었었는지 흐릿하게 번져있는 소녀의 초상화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박 교수의 나레이션

삼십팔 년 전 나홀간의 그 일들이 결국은, 깰 수 없는 악몽이 되어

내 삶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9. 병원 뒤, 빨래 건조터 (아침) - 12월 16일

맑게 갠 겨울 하늘이 옥색으로 눈부시다.

겨울답지 않게 햇벌이 따사로운 병원 뒤편 빨래 건조터.

대나무 장대로 만든 기다란 빨랫대들이 줄지어 있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이불 호칭들이 하얗게 널려 하늘 거리고 있다.

자막 - '1941년 12월'

박 교수의 나레이션

일천구백사십일 년 겨울, 내가 의학도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할 무렵...

세상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더불어 제국주의가 극으로 치달고 있었지만

내가 속한 인생 병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태풍의 눈 속처럼 고요했다.

하얀 이불 호칭 위로 보이는 진혁의 그림자, 나무상자에 꾸그리고 앉아 책을 보고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종소리를 듣고 일어서다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는 진혁.

땅에 펼쳐져 있는 렘브란트의 스케치가 담긴 화집.

재빨리 화집을 집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낸 뒤 서둘러 달려가는 진혁

10. 복도 (아침)

무리를 지어 복도를 걷어가는 의사 이수인(26세, 남자) 와 실습생들.

수인을 쫓아가며 뒤에서 속닥거리는 실습생들.

실습생 2

(은밀하게)

그러엄....아무거나 물어봐 봐. 다 말해 줘.

귀신인데 뭘 모르잖나?

실습생 3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진짜 쳐다보고만 있으면 나와요?

실습생 1

계속. 나올 때까지.

실습생 2

근데....절대로 그 거울은 깨뜨리면 안돼.

실습생 3

....왜요?

실습생 2

그렇게 되면 귀신이 거울 속에서 빠져나와버린다는 거지.

실습생 3

예? 아이....말도 안 돼요

실습생 1

(어깨를 툭 치며)

해보면 알게 돼.

수인, 걸으면서 힐끗 뒤 돌아본다.

실습생 2

(수인에게 바짝 다가가며)

....괜찮으세요, 선생님?

(눅살스럽게)

어제도 응급 환자 때문에 꼬박이 밤을 새우시고....

저희는 이틀만 새도 이렇게 비몽사몽인데....

어떻게....며칠 밤을 새우시고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으십니까?

수인

(무덤덤하게)

잠이야 죽으면 실컷 잘 텐데, 뭐....

실습생 2

역시...독하십니다.

수인, 걸어가며 피식 웃는다.

덩달아 웃는 실습생들.

11. 병원 앞 (아침)

안생병원(安生病院) 현관에서 카메라, 붉 다운 하면 병원 정문 입구를 향해 뛰어 들어가는 진혁의 뒷모습.

12. 병실 (아침)

가쁜 숨을 조심스럽게 내쉬며 실습생들 사이를 조용히 비집고 들어오는 박진혁(22세, 남자), 수인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환자를 진료하는 수인.

실습생 1, 2, 3, 부러운 듯 진혁을 바라본다.

진혁, 왠지 어느 때와 다른 분위기에 의아해 한다.

실습생 3

(수인의 눈치를 살피고)

....좋겠다.

진혁

(길게 숨을 내쉬고 입 모양으로)

....뭐가?

실습생 2

(속삭이며)

....누구는 이주일째 집에도 못가고 잠도 못자고 이 고생인데,
누구는 호강하러 간대고....과연 미래의 원장 사위답다....

진혁

(어리둥절하여)

....예?

실습생 3

(속삭이며)

부럽다, 박진혁. 시체가 밥을 달라고 하겠냐, 물을 달라고 하겠냐,
아님 아프다고 방방 뛰길 하겠냐....
며칠동안 콧구멍이 부르트도록 자겠구나....

진혁

(답답하다는 듯이)

무슨 소리아...?

수인

(소리)

목소리가 너무 크다.

움찔하는 실습생들.

수인

박진혁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시체실 야근이다.
시체실 냉장 상태가 불안정해서 그런 거니까
두세 시간에 한 번 씩 잊지 말고 냉장상태 점검해.

실습생 2, 3

(놀리며)

....일주일?

부러운 듯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실습생들을 향해 수인이 덧붙인다.

수인

원장님 명이니까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13. 원장실 (아침)

책상 앞에 서서 진혁을 바라보는 원장(50세, 여자)의 실루엣, 바짝 마른 체형에 멋스런 중년여성이다.

원장

(소파를 가리키며)

어, 거기 앉아....

소파 쪽으로 걸어가 앉는 진혁.

자리에 앉는 원장.

원장

(멀리 소파에 앉아있는 진혁을 바라보며)

산소는 잘 다녀왔구?

진혁

....예.

원장

그래, 생전에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운 외동아들인데 부모님 실망 시켜드리면 안되지....

....자넬 보자고 한건 다름이 아니고, 혼례문제 때문일세.

진혁

(내키지는 않지만)

....예.

원장

우리 아오이가 동경에서 돌아왔어.

지금은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있고, 조만간 자네하고 인사해야지.

진혁

....예.

원장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자네....우리 아오이 생각나나?

진혁

....아주 어렸을 때 본 기억 밖에....

원장

(웃으며)

....그래?

지금은 처녀가 다 됐지....

원장,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 쪽으로 걸어온다.

원장

....자태가 얼마나 고운데....

우리 바깥양반이나 자네 부모님이 보셨다면 무척이나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의 혼례를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야.

원장, 소파 팔걸이에 걸터앉는다.
쓱 들어간 양 볼 때문에 더 엄격해 보이는 원장.

진혁

....원장님의 배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질 자식처럼 대해주시고, 학업도 지원해 주시고...

원장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집안끼리의 정혼 때문이 아니라, 난 진혁 군을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진혁

....감사합니다.

원장

감사는....

(팔걸이에서 내려앉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죄다 모던 뽀이다 모던 걸이다 하면서
자유연애랍시고 어른들 뜻은 안중에도 없는데,
우리 진혁 군은 어른 뜻에 순종하고, 착하고, 듬직하고....

정말 내 맘에 속 들어.

잠자코 있는 진혁.

원장

좀 서두는 감이 있지만...봄엔 식을 올려야겠지?
맘 같아선 해가 바뀌기 전에 혼례를 치루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일단 그렇게 정했네.

진혁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예.

14. 강가 (아침)

인적 없는 차가운 겨울 강가에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얼어붙은 강 위를 총총거리며 걷고 있는 두세 마리의 새들.
모이를 먹는지 얼음 위를 쪼고 있다.
'탁탁...탁탁탁', 새 부리가 얼음에 부딪치는 소리 들린다.

15. 해부실 (낮)

인서트 - '解剖室(해부실)' 이라고 써있는 명판 클로즈 업.

벌거벗은 남자의 시체, 한 쪽 팔을 들고 해부대 위에 누워있다.
차트를 들고 시체 앞에 서 있는 진혁, 거북한 표정이다.
목의 상처를 꼼꼼히 관찰하는 교수 김인영(28세).
꽂꽂한 자세로 그 옆에 서서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황색 군복 차림의 아키야마 소좌(43세).

인영

사망한 지 삼십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키야마 소좌

냄새로 봐선 한 이틀 더 된 거 같은데....

(두 손을 내저으며)

아, 선생이 맞겠죠.

(혼잣말로)

....부산에서 경성으로 문서를 전달하던 군인이 죽었다....

살인잔 문서엔 손도 대지 않았고....

죽인 뒤 난도질까지 해가면서...

눈동자만 굴러 아키야마 소좌를 힐끔거리는 진혁.
인영, 시체 위 파이프에 달린 수도꼭지들을 하나씩 틀기 시작한다.

아키야마 소좌

(눈살을 찌푸리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무슨 목적으로...

....조선에 온 지 일주일도 채 안된 병사였는데....

(인영에게)

가네다 선생,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아키야마 소좌를 쳐다보는 인영.
여러 개의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

16. 해부실 (낮)

창살을 통해 보이는 해부실 밖의 인영과 기자들의 다리.

인영

(소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자상은 매우 날카롭고 긴 금속에 의한 것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인영의 목소리 위로 진혁의 구역질 하는 소리가 해부실 안을 울린다
시체를 옮겨놓은 침상, 진혁이 몸을 지탱하려고 기대자 스펙클 굴러간다
빈 화면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침상 위 팔 든 시체.

기자 1

(소리)

사체를 난도질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소리)

....예...죽이고 나서까지...시체를 참혹하게 난도질한 걸로 봐선...
범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괴로워하는 진혁, 정신을 차리려고 수도를 틀고 찬 물에 세수를 한다
정신을 가다듬고, 침상으로 다가가 천을 당겨 삐죽 솟아있는 시체의 팔을 덮는다
침상을 밀며 해부실 밖으로 나간다.

17. 강가 (해질녘)

직부감으로 얼어있는 강 위에 십여 명의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밑을 보며 웅성대는 모습이 보인다
누군가 큰 망치를 들어 얼음을 내려치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금이 가는 얼음
놀란 새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고 원을 그리고 서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카메라, 천천히 내려오면 강
속에 얼어있는 교복 입은 여고생의 시체,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얼음 속에 들어있는 그 모습이 섬뜩하다
'쿵' 하고 내려치는 망치, 뿌옇게 보이는 시체의 정수리 위로 '빠지직' 갈라지는 얼음.

18. 병원 앞 정원 (밤)

수첩에다 벤치에 앉아있는 실습생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진혁의 손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진혁 옆에 앉은 실습생 1.

실습생 1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우, 졸려...

부검 할 만해?

진혁과 실습생 1의 뒷모습 너머로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실습생 2, 3이 보인다
모두 지친 듯 안색이 초췌하다.

진혁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쉬고)

....전 아무래도 의사 체질이 아닌가 봐요....

실습생 1

....왜?

진혁

아까 낮에 처음으로 부검을 도왔는데요....

(인상을 찌푸리며)

....시체는 산 사람처럼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가네다 선생님은 아무치두 얹게 시체 몸속에 손을 쭉쭉 집어넣구....

어후- 끝나자마자 조반 먹은 거 다 게워냈어요....

실습생 1

(힘내라는 듯 진혁의 어깨를 툭 치며)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웬 살인사건이래나?

실습생 2

(소리)

야야!

실습생 2 쪽을 바라보는 실습생 1과 진혁, 잠에서 깨는 실습생 3.

실습생 2

(일어나 앉아)

그 시체 말고 좀 전에 시체 하나 또 들어왔는데...본 사람 있어?

실습생 1

또 들어왔어?

실습생 2

(실습생 3에게)

너, 못 봤나?

실습생 3

(신기한 걸 봤다는 듯이 감탄하며)

아...여고생 시체요?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는 진혁과 실습생 1.

실습생 2

봤구나!

(진혁과 실습생 1에게 시선을 돌리며)

좀 전에...여고생 시체 하나가 동태 마냥 아주 팡팡 얼어서 들어왔는데...

야- 양귀비가 따루 없어.

얼마나 미인인지 이걸 시체가 아니라, 선녀를 박제해 놓은 것 같더라니까!

반듯한 이목구비에서부터...새하얀 살결까지 완전히 한 쪽의 미인도더라구!

터무니없다는 듯이 실습생 2를 빤히 쳐다보는 실습생 1과 진혁.

실습생 1

(실습생 2를 빤히 쳐다보며)

참 나....

실습생 2

(시선을 의식하고)

정말이라니까... 니들도 한번 봐봐!

실습생 3

진짜예요, 정말 미인이었어요.

진혁아, 너두 이따 시체실 가면 꼭 한번 봐봐!

실습생 2

어허...

그러다 진혁이 애 만들라....

모두 웃는다.

진혁

(꺼림대하다는 듯이)

그만하세요....

안 그래도 거울 얘기 때문에 깨름칙한데....

더 가기 싫어져요.

실습생 2

(벤치에서 내려와 진혁 앞에서 장난스럽게 애걸하며)

....그럼 내가 대신 거기 가면 안 될까?

님도 보고, 잠도 좀 자게....

진혁

(진지하게)

아무리.... 배고프면 뒷간서도 밥 먹는다지만, 정말 시체실에 가고 싶으세요?

(동의를 구하듯 실습생 1을 쳐다보며)

아니, 암만 졸려두.... 시체 옆에서 잠이 와요?

실습생 1

박 진혁.

(진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무뚝뚝하게)

....배부른 소리하는 니가 부럽다.

19. 인영의 집. 방 (밤)

옷장 문을 여는 인영.

옷장 가득 가지런히 걸려 있는 인영의 옷 너머로 보이는 인영, 옷을 갈아입는다

인영

(웃음)

....그 학생, 부검이 처음이라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나저나 당신, 내일 강의 첫 날인데 준비는 다 하셨어요?
십삼, 십사 기 후배들 만만치 않으니 긴장하는 게 좋다고들 하던데...

20. 시체실 (밤)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진혁.
침상 위 흰 천이 덮인 시체의 한 쪽 팔이 천 밖으로 나와 위를 향하고 있다
사후 경직 때문에 시체가 한 팔을 들고 있는 것이다.
찡찡한 표정의 진혁, 솟아있는 팔을 보며 뭔가를 망설이다 그냥 뒤돌아 책상 앞으로 가 앉는다.
책상 서랍을 여는 진혁, 서랍 안에 들어있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자 흠칫 놀라 얼른 서랍을 닫는다.

진혁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 기분 나쁘게시리....
누가 갖다 논거야....

잠시 후 -

진혁의 모습이 사라진 책상 앞에서 카메라, 뒤로 빠지면 팔 든 시체 앞에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 거울을 보는 진혁.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진혁.

이때, 웅 - 하며 작동하는 시체보관함 냉각기 기계음.

소스라치게 놀라는 진혁, 오싹한 기분에 거울만 돌려 주변을 살핀다.

거울에 비치는 어슴푸레한 시체실 풍경.

진혁, 아무 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안에서 자신을 바짝 쳐다보는 피기스런 남자.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돌리는 진혁, 옆에 있는 협탁을 치자 시체세척용 화학약품 병들이 떨어져 깨진다.

진혁의 주변엔 아무도 없다.

약품이 섞이면서 생긴 하얀 연기가 진혁 주변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진혁, 시체 위에 거울을 올려놓고 침상 밑으로 들어가 쭈그리고 약품을 닦는다.

시체 배 위에 올려놓은 거울이 떨어질 듯 불안해 보인다.

입을 막고 기침을 해대며 바닥을 닦아내는 진혁의 얼굴 위로 들리는 거울 깨지는 소리

놀라는 진혁, 돌아보면 산산 조각나 있는 거울.

난처한 표정으로 거울조각들을 쳐다보는 진혁,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때, 침상 아래로 내려오는 시체의 두 다리.

경악하는 진혁, 주저앉은 채 손을 뒤로 뻗다 뭔가에 짚린다.

바닥을 보면 십여 개로 조각난 어두운 거울들 속에 침상 위에서 고개를 내미는 피기스런 시체의 얼굴이 비

친다.

기겁하는 진혁, 위를 보면 아무도 없다.

다시 침상 아래를 보면 시체의 다리 또한 온데간데없다.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진혁, 용기를 내어 침상 밑에서 나오는데 침상에서 진혁의 얼굴 위로 튀어나오는 시체의 얼굴, 눈을 부릅뜨고 진혁을 내려다본다.

동공이 커지며 경악하는 진혁.

책상에 엎드린 채 눈을 뜨며 꿈에서 깨는 진혁, 바로 눈앞 거울에 비친 남자의 얼굴에 놀라 뒤돌아보면 수인이 서 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서는 진혁.

수인

(잠시 지켜보다가)

....거울 넣어.

서둘러 서랍을 열고 거울을 넣으려다 떨어뜨리는 진혁, 떨어지는 거울을 용케 받아 서랍 안에 넣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수인

이 시체 일단 세척시키고, 오 번에 보관해 뒀.

진혁, 수인의 뒤를 보면 천에 덮인 또 다른 시체가 들어와 있다.

진혁

아...예...

차트에 기록을 하는 수인.

수인

(기록을 멈추고 진혁을 쳐다보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진혁

....예.

수인

(차트를 내려놓고 나가며)

저기 약품들 떨어지겠다. 제대루 놓구.

....줄지 말구.

문을 닫고 나가는 수인.

진혁, 험탁 위 불안하게 놓여진 약품쟁반으로 다가가 대수롭지 않게 쟁반을 슬쩍 잡아당기자 반대편으로 떨어져 깨지는 약품 병들.

꿈과 똑같이 약품이 섞이면서 진혁 주변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꿈과 비슷한 상황에 웬지 으스스해지는 진혁, 주변을 살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침상 밑으로 들어가 입을 막고 기침을 해대며 바닥을 닦아내는 진혁, 새로 들어온 시체의 침대 아래를 흥건히 적신 물을 발견한다.

침대 위 시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 위로 똑똑 떨어지고 있다.

진혁, 좀 더 고개를 들어 시체를 바라보면 천 아래로 가늘고 백옥같이 하얀 여자의 발목이 보인다.

천천히 일어나 시체 옆으로 다가가는 진혁,, 천에 덮인 시체를 내려다본다.

하얀 연기가 시체와 진혁 주변을 신비스럽게 감싸고 있다.

천에 덮인 시체의 윤곽이 도드라져 보인다.

천천히 천을 걷어내는 진혁.

홀어지는 연기 사이로 확연히 드러나는 여고생의 얼굴, 천천히 녹으면서 김을 피워낸다.

백지장처럼 하얀 피부, 새파란 입술, 섬뜩하기도 하지만 비범한 미모에 놀라는 진혁.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다.

무엇에 홀린 듯 젖어있는 여고생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진혁.

‘땡그랑’ 하고 금속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차갑게 들린다.

무슨 소리가 싶어 침대 바닥을 살펴보는 진혁,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반지를 발견하고 집어 든다.

진혁, 소녀의 손을 살펴보자 왼손 약지에 반지자국이 선명하게 있다.

반지를 꺼주려 하지만 들어가질 않고 다른 손가락 역시 맞지 않는다.

의아해하는 진혁.

21. 강의실 (낮) - 12월 17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나른한 햇살이 밤샘에 지쳐 초췌한 진혁의 얼굴에 내리비친다.

강의는 듣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교복 차림의 진혁.

진혁의 옆에 앉아있던 실습생 2, 손을 들고 얘기한다.

쳐다보는 진혁.

실습생 2

(소리)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스티븐슨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도 결국 다중인격 장애자에 대한 또 다른 문화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다 손에 쥐고 있던 여고생의 반지를 쳐다보는 진혁.

22. 병원 뒤 (오후)

바람에 하늘거리는 이불 호청들 사이로 진혁이 우두커니 나무상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시체의 반지를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꺾다 뺐다 해본다.

23. 응급실 복도 (밤)

시체가 누워있는 침상을 밀고 가는 진혁, 갑자기 '응웅' 거리는 소리와 함께 등이 깜빡이자 쳐다본다.
이때, 진혁 옆을 지나쳐 황급히 응급실로 뛰어 들어가는 실습생 1.
열려있는 문으로 이수리장이 된 응급실 안을 쳐다보는 진혁.
응급실 안, 침대 위엔 10세 정도 된 여자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그 주위에 인영,
수인, 실습생 1, 3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수인, 실습생 3에게 호통 친다.

수인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야! 너 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겉먹은 표정의 실습생 3,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수인

(힘에 부쳐 몸이 흔들리며)

빨리 와서 안 잡아?

실습생 3, 부랴부랴 달려와 발작을 하는 소녀의 한쪽 다리를 잡는다.
응급실 안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진혁, 끌고 가던 침상 위의 시체를 바라보며

진혁

(혼잣말로)

....당신 딸만이라도 살아야 할 텐데....

24. 시체실 (밤)

흰 천을 펼쳐 여자 시체 위에 덮는 진혁.
시체의 얼굴은 교통사고로 인해 유리에 찢리고 굵힌 상처들 투성이다.
시체의 얼굴까지 흰 천을 끌어올려 덮는 진혁.

진혁, 8번 보관함 안으로 시체를 밀어 넣고 문을 닫는다.
'끼이익' 하고 도로 열리는 보관함 문.
진혁, 다시 문을 세게 닫아보지만 또 열리자 시체를 덮은 천을 조금 당겨 문틈에 끼워 닫는다.

책상 위의 스탠드 등이 켜지자 우울한 표정의 진혁이 나타난다.
진혁, 일지를 기록하려고 책상 서랍을 여는데 서랍 안에서 '또르르' 굴러 나오는 여고생의 반지.
반지를 집어 들고 들여다보는 진혁.

잠시 후 -

열린 보관함 옆에서 시체 손에 반지를 끼우려고 열심히 진혁.

진혁

....이 반지....맘에 안 들어요?

여고생 시체 손에 나있는 선명한 반지 자국.

적막한 시체실 안, 보관함을 열어놓은 채 그 옆 시체보관함에 등을 기대고 꾸그려 앉는 진혁.

진혁

....나도 이런 반지가 있었어요....돌아가신 부모님 유품이었는데....

작년에 여기 경성에 올라오면서 바보같이 잃어버렸죠....

....난 죽은 사람들을 볼 때 마다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이 느껴져요....나처럼....

....그게 날 너무 힘들게 하네요.

....사실 난 의사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고아가 된 날, 자식처럼 돌봐주신 원장님이 내심 바라세니까....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몇 달 뒤면 얼굴도 모르는 원장님 따님하구 결혼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병원 원장이 되어있겠죠....

....바보 같죠?

아름다운 여고생 시체.

진혁, 자리에서 일어나 여고생 시체를 내려다본다.

진혁

....당신 모습 이렇게 보고 있으면....행복해보여요.

가장 좋은 시절을 영원히 봉인해 놓은 것 같아서....

....난 평생 이렇게 바보처럼 살겠죠....

(힘없이)

미안해요....혼자 떠들어서....

'웅웅' 거리는 소리와 함께 껌뻑거리는 전등.

진혁

(당황하며)

어?

전등을 쳐다보는 진혁의 얼굴과 여고생 시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한다.

25. 병원 앞 정원 (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

입구에서 손에 촛불을 들고 하나 둘씩 병원을 나오는 사람들.

정전이지만 모처럼의 휴식에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짓는다.

실습생 1

(실습생 2에게)

아니, 왜 추운데 다들 밖으로 나가는 거야?

실습생 2

(실습생 1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눈이 오잖나, 눈이....

좋다!

뒤에서 나온 진혁을 바라보는 실습생 2

실습생 2

진혁이 너 임마,

시체들 외롭게 혼자 나오면 어떡해?

힘없이 미소 짓는 진혁.

입구에 서서 촛불들이 일렁이는 화단을 흐뭇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수인

진혁과 실습생들, 벤치에 영켜 앉는다.

실습생 3

정전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야....이렇게도 쉴 수가 있구나....

멀리 보이는 입구에는 인영과 최 간호원이 마주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

실습생 2

내가 이렇게 빈다....

제발 오늘 하루....

전기야 들어오지 말어라!

모인 사람들, 킁킁거린다.

이때 갑자기 환하게 불이 밝혀지는 정원.

실습생들

(아쉬워하며)

으아...안돼....

진혁, 웃는다.

멀리 재밌어하며 웃는 인영과 최 간호원의 모습 뒤로 까칠한 얼굴의 수인이 웃으며 들어간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다.

26. 해부실 (새벽) - 12월 18일

황한 해부실 내부, 천정에서 반 쯤 내려온 창문을 통해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
바닥 물청소를 하고 있는 진혁, 열심이다.

27. 병원 뒤, 소각장 (아침)

이불 호청을 널어놓은 빨래대 사이로 끄덕대며 쓰레기 더미를 끌고 가는 진혁.
소각장의 불 속에 쓰레기들을 넣어 태우고 있는 진혁과 실습생 1.
열기와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는 진혁과 실습생 1.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진혁, 주머니에서 뭔가 꺼낸다.
그동안 틈틈이 그림을 그려온 수첩이다.
진혁, 수첩을 펼쳐 넘겨보다 한 장씩 찢어 불 속에 집어넣는다.

실습생 1

(의아해하며)

야, 왜 그래? 그걸 왜 태워버려?

진혁

(불타는 그림을 보며, 쓸쓸하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그린 건데...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만 생각만 하게 되고...
이제 공부에만 전념하려고요....

실습생 1

....그래....

원장 되고 또 그리면 돼.
아직 살날이 더 많다!

피식 웃는 진혁의 모습이 소각장 안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 너머로 보인다

실습생 1

....진짜 예쁘다?

진혁

....예?

실습생 1

여고생 시체 말이야...

진혁

(실습생 1을 쳐다보며)

모...모르죠, 저는...

실습생 1

거참, 짜식들 괜히 사람 궁급하게 만들어 놨구....

내일 장 치르러 나간다던데...

머뭇거리다 타오르는 불길로 시선을 돌리는 진혁.

28. 복도 (오후)

이동 침대 위 천 밖으로 나온 소년병의 손, 손톱에 흙과 피가 엉겨 붙어 있다
사복 차림의 아키야마 소좌, 소년병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천 안으로 넣어준다

아키야마 소좌

(나지막이)

척쇼(제기랄)....

진혁 군,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

수사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이 시체에 대해서는 진혁 군과 나, 그리고 가네다 선생만 알고 있는 거야

진혁

(고개를 끄덕이며)

....예.

29. 영안실 복도 (오후)

소년병의 시체가 누워있는 이동 침대를 밀며 영안실 복도를 걸어가는 진혁

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복도를 나른하게 비춰주고 있다.

텅 빈 영안실 앞을 지나가는 진혁, 시체실에서 내려오는 일본인 승려와 마주친다

승려, 무슨 영문에서인지 진혁에게 합장한다.

승려를 쳐다보며 멀어지는 진혁.

30. 시체실 (해질녘)

소년병 시체를 넣고 보관함 문을 닫는 진혁.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시체실 한 쪽을 밝히고 있다.

여고생의 시신이 들어있는 보관함으로 다가가는 진혁, 조용히 보관함을 연다

여고생의 시체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진혁.

건물 어디선가 들려오는 베르너의 가곡 'Hidden-roslein(들장미)', 고음의 소프라노가 감미롭다.

진혁, 노래 소리를 들으며 여고생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때, 갑자기 들리는 원장의 목소리.

원장

(소리)

진혁 군, 여기 있었네....

좀 전에 찾았는데....

진혁

(나쁜 짓 하다 들킨 것 마냥 흠칫 놀리며)

아, 워....원장님....

원장, 진혁의 어깨너머로 보이는 여고생의 시체를 바라본다.

원장

(담담하게)

예쁘지?

진혁

(당황하며)

....네?...아...예....

원장, 여고생의 시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앞으로 바짝 다가간다.

원장을 바라보는 진혁.

원장과 진혁 사이로 보이는 여고생의 얼굴.

원장

(소리)

이렇게 예쁜 애가 이 엄동설한에 한강에 빠져 자살 했대....

...남녀 사이 갈라놓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만...

여고생 시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원장.

원장

동반 자살한 남자는 아직 시체도 못 찾았다는군...
유서가 발견됐는데 부모 반대가 무척 심했나봐...
이렇게 죽을 정도로 사랑했을 줄 부모가 알았겠어?
...차라리 도망이라도 쳐서 살 것이지...

진혁, 원장의 이야기를 듣다가 여고생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원장

(소리)

...얼음 깨고 수색하는 데만도 사흘이나 걸렸대...
...얼마나 추웠을까...

원장, 말을 멈추고 여고생을 우두커니 내려다본다.

원장

(진혁을 쳐다보며)

아침...자네 태어난 시가 어떻게 되지?

진혁

(고개를 들어 원장을 쳐다보고)

...정사년 구월 그믐...인시 생입니다.

원장

정사년 구월 그믐, 인시...

그걸 물어보러 들어와서는 딱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네...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나가는 원장.

진혁, 원장이 나가는 것을 보고나서 다시 여고생을 내려다본다.

원장의 얘기를 듣고 보니 여고생이 더욱 안쓰럽게 보인다.

문득 뭔가 생각난 듯, 주머니를 뒤지더니 반지를 꺼내든다.

잠시 반지를 보다 별 기대 없이 여고생의 왼손 약지에 끼워보자 쑥 들어가는 반지.

신기해하며 힘없이 미소를 짓는 진혁.

인서트 - 어둠이 내려앉은 영안실 복도.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손바닥 두 개만한 종이에 만년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진혁
거의 완성된 여고생의 초상화다.
눈을 뜨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고생 얼굴이다.
이때, 영안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
뒤이어 들리는 여인의 흐느낌소리.
진혁, 그리던 걸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본다.

31. 영안실 복도 (밤)

여인의 흐느낌을 따라 어두운 복도를 걷는 진혁.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커진다.
영안실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는 진혁.
서 있는 일본인 승려 옆으로 검은 기모노를 입은 여인, 옆드려 서럽게 흐느끼고 있다
영정사진에 종이부적을 붙이는 승려의 손.
홀깃 뒤를 돌아다보는 승려.
멈칫하는 진혁.
이때, 울리기 시작하는 패종시계의 종소리.

땡 -

놀라는 진혁,
진혁을 바라보는 승려.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시체실로 돌아가는 진혁.

땡 -

멀어지는 여인의 흐느낌.
뒤를 돌아보며 패종시계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복도를 걷는 진혁.

32. 영안실 (밤)

계속해서 울리는 패종소리.
타는 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목탁을 치며 독경을 시작하는 일본인 승려의 모습이 두 개의 액자 뒷면 너머로 보인다
영안실의 기모노 여인, 점점 더 서럽게 흐느낀다.

33. 영안실 복도 (밤)

승려의 독경과 여인의 흐느낌이 패종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지는 텅 빈 영안실 복도

인서트 - 시체실 문 앞에서 뒤돌아보는 진혁.

34. 영안실 (밤)

거칠게 목탁을 두드리는 손.

타오르는 향 연기.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기모노 여인, 눈물 젖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다.

단 위에 올려져 있는 싱그러운 국화꽃.

인서트 - 시체실 문 앞에서 뒤돌아보고 있는 찡찡한 표정의 진혁.

부적 붙은 두 개의 액자에서 카메라, 빠지면 독경하는 승려와 오열하는 기모노 여인의 뒷모습이 보인다.

인서트 - 시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진혁의 모습이 멀리 보인다.

35. 시체실 (밤)

진혁, 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 앞에 앉으려는데 책상 위에 놓아둔 그림이 없다.

의아해하며 그림을 찾는 진혁 뒤로 보관함 안에서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딩- 딩- 딩- 딩-'

순간 모굴이 송연해지는 진혁, 보관함들을 둘러보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간다.

5번 보관함 앞에 선 진혁, 보관함에 가만히 손을 대본다.

'딩- 딩- 딩-'

깜짝 놀라 손을 떼는 진혁, 계속해서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두려운 나머지 문고리를 움켜잡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자 갑자기 쥐죽은 듯 고요해지는 시체실 안.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보관함 문을 열어보는 진혁.

딸깍....

질은 어둠에 싸인 보관함 안은 텅 비어있고 문 밖으로 검은 물만 똑똑 흘러내린다.

허리를 숙여 보관함 안을 들여다보는 진혁의 눈앞엔 끝없는 암흑만이 펼쳐진다.

어둠 저편에서 들려오는 강물소리와 함께 더 많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검은 물.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광경에 빠져드는 진혁, 보관함 안으로 고개를 들어민다.

이때, 암흑 속에서 '딩- 딩- 딩- 딩-' 소리를 내며 빠르게 기어오는 물에 젖은 여고생 시체.

경악하는 진혁 앞으로 순식간에 바짝 다가온 여고생 시체가 팔을 뻗어 진혁의 머리를 덤덤 부여잡는다.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는 진혁의 코 앞엔 검푸른 이끼가 뒤덮인 무시무시한 잿빛 얼굴이 있다.

극도의 공포에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진혁, 문을 잡고 죽을힘을 다해 버텨보지만 서서히 보관함 안으로 끌려들어가고 만다.

진혁이 끌려들어간 뒤 닫히는 5번 보관함.

보관함 안에서 진혁의 비명과 몸부림치는 소리가 얼마간 뒤섞여 들려오다 갑자기 푹 멈춘다.

36. 진혁의 환상

봄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미닫이문이 양쪽으로 열리면 다다미방 안으로 연미복을 차려입은 진혁이 들어간다.

방안에 내리는 꽃비.

원색의 기모노를 입고 신부화장을 한 여고생이 무릎을 꿇고 다소곳하게 앉아 진혁을 기다린다.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 맞절을 하는 진혁과 여고생.

고개를 드는 진혁과 여고생 사이로 카메라, 들어가면 두 사람 뒤로 또 다른 여름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미닫이문이 있다.

카메라, 문으로 더 가까이 들어갈 때 다시 미닫이문이 양쪽으로 열리면 똑같이 생긴 다다미방이 나온다.

카메라, 방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임신한 여고생과 여고생의 배에 귀를 대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진혁.

배에서 귀를 떼고 서로를 쳐다보는 두 사람 사이로 카메라, 계속 들어가고 이번엔 가을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미닫이문이 양쪽으로 열린다.

카메라, 방안에 들어가면 두세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안고 행복해 하는 진혁과 옆에서 웃으며 행복해 하는 여고생.

아이를 내려놓는 진혁을 지나, 카메라 들어가면 거울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미닫이문이 양쪽으로 열린다.

이번엔 다다미 방안을 직부감으로 내려오는 카메라, 바닥에는 천을 덮은 채 진혁과 여고생이 뒹굴고 있다.

카메라, 행복해하는 진혁과 여고생 얼굴까지 내려가면 진혁의 뒤통수가 여고생의 얼굴을 가린다.

37. 시체실 (아침) - 12월 19일

진혁의 뒤통수가 여고생 얼굴 위로 지나가면 차갑게 얼어붙은 채 입과 코에서 검은 물을 쏟아내는 여고생 시체의 잿빛 얼굴이 드러난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진혁.

뺨뺨하게 얼어붙은 여고생의 알몸과 엉켜있던 진혁, 기겁하며 일어난다.

눈을 뜨고 누워있는 여고생의 입과 코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물이 침대 위에 흥건하다.

놀라 침대에서 떨어지는 진혁, 괴로워하며 입에서 검은 물을 쏟아낸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창백한 아침 햇살.

38. 산기슭 (아침)

일본인 승려, 액지에서 종이부적을 떼면 환하게 웃고 있는 원장의 딸, 아오이의 사진이 드러난다.

진혁이 시체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고생이다.

나란히 놓여있는 액지에서도 종이부적을 떼어내는 일본인 승려의 손.

그 사진의 주인공은 진혁이다.

불붙은 아오이 사진에 진혁의 사진을 갖다 대 불을 붙이는 검은 기모노 여인의 손.

승려에게 합장하고 고개를 드는 기모노 여인, 원장이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는 원장.
접시 위 타들어가는 사진 속의 아오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원장

....스님께 어떻게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산 사람과 영혼결혼식까지 올리게 한 게 제 욕심일까요?

(눈물을 머금으며)

....하지만 아오이를 죽게 한 그 놈과는....
....저승에서도 절대로 만나게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접시 위 진혁의 사진이 타들어가고 있다.
망연히 타오르는 불길만 바라보는 원장.

원장

(타들어가는 사진을 바라보며)

이것두....인연이겠죠.

접시 위 두 장의 사진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맑은 목탁소리와 함께 서로 엉키며 하늘로 천천히 올라간다.

39. 시체실 (아침)

바닥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여고생 시체를 쳐다보는 진혁의 머리털이 반 이상 하얗게 세 있다
진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때마다 내뿜는 허연 입김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바닥에 고인 검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여고생의 초상화가 기괴하게 번져있다
그 옆으로 물에 비친, 진혁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여고생 귀신.

40. 병원 외관 (아침)

창 밖의 카메라, 시체실 안에 주저앉아 있는 진혁에서 병원 외관을 따라 2층의 한 병실 창 앞까지 봄 업.
창 안쪽에서 블라인드를 치는 수인.

41. 병실 (같은 시간)

침대 앞으로 끌어당겨지는 의자.
침대에 기댄 채 누워 수인을 바라보는 아사코(10세, 여자).
의자에 앉아 아사코를 바라보는 수인, 몹시 지쳐 보인다.

수인

(깊은 숨을 내쉬고 나서, 밝은 얼굴로)

아사코...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제 나쁜 꿈도 안 꾸고 무서운 사람들도 안 나타날 거야.
힘들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응?

수인의 나레이션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 아이가 병원에 실려 들어온 건
이틀 전이었다.

42. 응급실 (밤) - 12월 17일 (2일 전)

페이드 인

씬 23과 동일

'웅웅' 거리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매달려 깜빡이는 것들.
다급한 표정으로 전등을 올려다보는 수인의 얼굴이 어둠 속에 나타났다 사라진다

수인

(소리)

뭐야, 이거?

주사기에 약을 넣다가 뒤돌아보는 인영의 모습이 어둠 속에 묻힌다.

수인

(소리)

빨리 발전실에 연락해!

간호조장

(다급하게)

선생님! 환자가 발작을....!

다시 '웅웅' 거리는 소리와 함께 깜빡이는 것들.
불이 켜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아비규환의 응급실.
발작을 일으키며 온몸을 격렬하게 떨고 있는 피투성이 소녀, 아사코.
수인과 간호조장, 피칠갑이 된 아사코의 옷을 기위로 잘라내며 상처 부위를 찾는다.
인영,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아사코를 잡고 있다.

인영

(다급하게)

잘 좀 잡아!

우왕좌왕하는 실습생 3 옆으로 실습생 1이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온다
열린 문 밖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응급실 안을 바라보는 진혁의 모습이 보인다

수인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야! 너 이 자식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겁먹은 표정의 실습생 3,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수인

(힘에 부쳐 몸이 흔들리며)

빨리 와서 안 잡아?

실습생 3, 부랴부랴 달려와 발작하는 아사코의 한쪽 다리를 잡는다.
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이다.
놓쳤다 잡았다는 반복하는 실습생 3
아사코의 옷을 가르는 수인의 가위.
수인 옆의 인영,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주사기를 들고 진정제를 투여 한다.

인영

(냉정하고 차분하게)

꼭 잡아.

수인과 실습생 1, 의아하다는 듯 잠시 시선을 교환한다.

수인

(인영에게)

외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다는 듯 아사코를 내려다보는 인영.
수인도 아사코를 내려다보며 의아해한다.
피칠갑 된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사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그렁그렁한 아사코의 시선은 수인
을 향하고 있다.
아사코의 몸에서 작은 경련이 일어난다.

43. 응급실 (밤)

응급실 한 귀퉁이를 밝히고 있는 스탠드 등.
침대 앞에 앉아있는 수인과 옆에 서있는 실습생 2, 침대 위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사코를 보고 있다

편안한 표정의 아사코

수인, 말없이 아사코를 내려다보고 있다.

실습생 2

....신기해요....

수인

신기하다니? 뭐가?

실습생 2

일가족 모두가 죽은 교통사고에서
상처 하나 없이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게...

수인

인명재천이라고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잖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사코

이때, 갑자기 껌뻑이기 시작하는 스탠드 등.

실습생 2

....또 이러네....

껌뻑 껌뻑대다 꺼지는 스탠드 등.

44. 복도 계단 (밤)

수인, 일렁이는 촛불을 들고 계단을 내려와 복도 쪽으로 걸어간다.

45. 시체실 (밤)

어두컴컴한 실내.

열려있는 8번 보관함 문.

46. 응급실 (아사코의 꿈)

두 눈을 부릅뜨고 천정을 응시하는 아사코의 얼굴에 촛불의 희미한 빛이 일렁인다

아사코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겁에 질린 것이다.

아사코 침대 옆에는 피 묻은 원피스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기 고개를 떨구고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빠르게 중얼댄다.

어두운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여자의 소름끼치는 목소리.
공포에 질린 채 눈동자만 굴러 여자를 쳐다보는 아사코.
아사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여자.
기괴한 음성이 고조되며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아사코를 노려보는 여자의 눈.
두 눈을 질끈 감는 아사코.
감았던 눈을 뜨면 아사코 위에 올라타 얼굴을 바싹 들이치는 머리 풀어헤친 여자.
아래 깔린 아사코, 두려움에 벌벌 떨며 힘겹게 입을 연다.

아사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엄...

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사코 얼굴에서 카메라, 뒤로 빠지면 대형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긴 머리에 흰 원피스를 입은 엄마가 보인다.

아사코의 어깨를 잡고 빗을 꺼내 머리를 빗기기 시작하는 엄마.

부들부들 떨며 엄마의 손길에 머리카락을 맡긴 채 서 있는 아사코.

낮이 나간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사코의 머리를 빗기는 엄마.

아사코의 머리를 빗기는 엄마의 손.

아사코, 시선을 내려 거울 속 자신을 보면 빗이 지나간 자리에서 붉은 피가 얼굴로 흘러내린다.

엄마, 천천히 허리를 숙여 아사코의 귓가에 속삭인다.

엄마

죽자.

턱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아사코, 피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촛불을 들어 엄마의 얼굴을 비춰본다.
괴이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미소 지으며 아사코를 내려다보는 엄마, 갑자기 두껍고 기다란 혀를 내뱉는다.
피범벅이 된 아사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에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47. 응급실 (아침) - 12월 18일

아사코의 시점으로 보이는 수인과 인영, 그리고 진혁과 실습생들.

멍하니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아사코.

실습생 1

(의아하다는 듯 아사코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 실어증과 악몽이라....

(수인에게)

일반적으로 뇌진탕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세들 아닌가요?

실습생 2

부모가 끔찍하게 죽어가는 걸 본 것 자체가 어린 애한테 큰 충격이겠지...
거기다가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으니...
...죄책감을 느낄 만도 하지.

실습생 3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수인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함과 동시에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야겠지.

인영

일단 정신분석요법과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을 방출하도록 해보죠.

아사코를 내려다보는 까칠한 얼굴의 수인.

48. 병실 (해질녘)

인서트 - 눈 내리는 정원 풍경.

건물 어디선가 들려오는 베르너의 가곡 'Hiden-roslein(들장미)', 고음의 소프라노가 감미롭다.

아사코 주위를 파티션으로 막아놓은 병실 안 풍경.

아사코의 팔뚝에 주사를 놓는 간호조장과 실습생 1.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아사코를 쳐다보는 수인.

정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아사코, 눈물이 그렇그렁한 눈동자를 아래로 내린다.

49. 자동차 안 (낮 - 회상)

아사코 시선으로 보이는 자동차 기어를 잡고 있는 남자의 손에서 카메라, 올라가면 룸미러에 비친 아사코의 얼굴.

아사코, 몸을 던져 뒷좌석에 털썩 앉아 창 밖을 내다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눈 쌓인 길 풍경.

아사코, 고개를 돌리면 엄마의 손거울을 통해 조수석에 앉아 머리를 빗는 엄마가 보인다.

아사코

(소리)

...엄마...

장난스레 혀를 내미는 아사코.

뒤로 돌아 아사코를 향해 웃어주는 긴 생머리에 흰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엄마 옆으로, 룸미러 속의 남자 역시 부드러운 눈길로 아사코를 향해 웃어준다.

팔베개를 하고 좌석에 기대 창 밖을 쳐다보는 아사코의 눈꺼풀이 무겁다.

잠시 졸다 앞을 바라보는 아사코.

운전석의 남자, 고개를 돌려 보조석에 앉아 머리를 빗는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의 얼굴을 쓰디듬는 남자.

엄마가 남자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자 웃는 남자.

자기도 할 말이 있는 듯 엄마에게 귓속말을 하는 남자, 뭐라 얘기하고 엄마의 목에 얼굴을 한번 파묻는다.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아사코를 의식한 듯 얼굴을 뒤로 빼는 엄마.

백미러를 통해 아사코의 눈치를 쭉 보더니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엄마에게 얘기하는 남자.

남자

(입모양)

사...랑...해...

잘투어린 눈빛으로 앞을 보는 아사코.

아사코

(소리)

나도...사랑해요...아저씨...

이때, 갑자기 아사코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위치가 바뀐다.

50. 병실 (밤)

파티션 안.

파곤한 얼굴의 수인, 스탠드 등의 불빛 방향을 조정한다.

그에 따라 주변 사물과 아사코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위치가 바뀐다.

눈을 뜨는 아사코.

아사코 시야에 들어오는 수인.

파티션 안의 수인과 아사코의 모습이 고즈넉해 보인다.

수인

(차분한 말투로)

잘 했어, 아사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침대에 누워 어리둥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사코, 침대 옆에 앉아있는 수인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

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다.

수인

오늘은 처음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아사코...선생님한테 무슨 얘길 했는지 기억나니?

아사코, 불안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수인,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준다.

수인

괜찮아, 아사코...
선생님하고 이렇게 몇 번만 더 얘기하고 나면
이제 무서운 꿈같은 건 안 꿀 거야.

사람 좋게 싱긋이 웃는 수인.
아사코의 불안한 눈초리에 안도하는 빛이 보인다.
수인, 아사코에게 약과 물을 준다.
수인을 쳐다보며 약을 삼키는 아사코, 무심코 구석 쪽을 보다가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어두운 구석엔 백발에 피투성이인 노파가 구부정하게 서서 아사코를 노려보고 있다.
구석에 시선을 고정할 채 수인의 가운을 붙잡고 벌벌 떠는 아사코.
수인, 아사코의 시선을 따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수인

(아사코를 침대에 눕히며)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약 먹었으니까 이제 푹 잘 수 있을 거야.

아사코, 약 기운에 천천히 몸에서 기운이 빠진다.
양복 윗도리를 들고 일어서는 수인, 주변을 살펴 아무 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을 향해 걸어간다.
반쯤 감긴 아사코의 시점으로 멀어지는 수인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 옆으로 피투성이 노파가 아사코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온다.
스르르 감기는 아사코의 눈.

51. 복도 (아사코의 꿈)

아사코,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감은 눈을 뜬다.
길게 뻗은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아사코의 뒷모습.
뒤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몸을 돌리는 아사코.
복도를 따라 걷는 흰칠한 키의 남자.
남자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아사코.

아사코

(혼잣말로)

아저씨...?

(멀어지는 남자를 따라가며)

아저씨!

남자는 아사코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성큼성큼 걸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다.
남자의 뒤를 쫓아 뛰어가는 아사코.
모퉁이를 돌아 아사코의 시선에 복도 저편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닫히는 병실 문.
문 앞까지 뛰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사코.

문을 열고 들어온 아사코, 이상하다는 표정이다.
아사코 얼굴에서 카메라, 뒤로 계속 빠지면 방금 전과 같은 복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사코의 얼굴에 두려움이 깃들 때, 어디선가 자그마하게 들려오는 갓난아이 울음소리.
어둠에 잠긴 복도 끝을 바라보는 아사코.
아사코 얼굴에 떨어지는 가는 빗방울.
갓난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유리조각 밟는 소리가 가까워지며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다가온다.
목덜미에 한기가 돌며 온몸에 소름이 짝 돋는 아사코.
하얀 달빛에 그 모습을 드러내면, 험클어진 백발에 피투성이인 노파가 굵은 등엔 갓난아이의 시체를 업은 채
괴상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다.
꼼짝 못하고 서서 부들부들 떠는 아사코.
계속해서 아사코에게 걸어오는 백발의 노파.
갑자기 '우드득' 하고 목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목이 꺾여진 채 덜렁거리며 다가오는 노파.
기겁하는 아사코.
노파, 아사코를 향해 다가오며 팔을 뻗는다.
노파의 팔 또한 이상한 힘에 의해 관절 반대 방향으로 꺾여 부러진다.
아사코, 힘껏 비명을 지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기괴한 모습으로 아사코를 향해 계속 다가오는 노파, 이번엔 배가 불룩해지더니 흰 무명 한복 위로 검붉은
피가 새어 나온다.
갓난아이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아사코의 귀를 때린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아사코, 있는 힘을 다해 뒷걸음질 쳐보려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속

순간 노파의 꺾인 목 언저리를 가로 지르며 무언가 빠르게 지나간다.
'피식 -' 어디선가 바람 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노파의 턱 밑으로 가느다란 빨간 선 하나가 그어져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아사코.
천천히 빨간 선 위와 아래가 좌우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노파의 몸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벽에 비친 그림자로 보인다.
 '데구루루' 노파의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사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진다
 순간 복도 끝부터 빠르게 다가오는 어둠이 노파와 아사코를 집어삼킨다
 이어 '차르르 - 차르르 -' 어둠 속에서 유리조각 썰리는 소리와 함께 갓난아이의 칭얼대는 소리가 간간히 들
 리다 멈춘다.
 구름이 걷히면서 달빛에 서서히 드러나는 복도
 갓난아이를 업고 기어 다니는 노파의 몸, 떨어진 목을 찾으려 바닥을 더듬으며 아사코 옆을 지나간다
 마치 어른의 눈을 붙여놓은 것같이 기형적으로 큰 갓난아이의 눈이 아사코를 원망스럽게 노려본다
 자신의 가슴 위에 노파의 잘린 머리가 올라와 두 눈을 치켜뜨고 내려다보는 것도 모르고, 숨을 죽인 채 머리
 없는 노파 등에 업혀 멀어지는 갓난아이만 쳐다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사코
 노파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직감하는 아사코, 가슴 위를 본다
 형클어진 백발에 주글주글한 주름으로 뒤덮인 노파의 얼굴이 썰룩이더니 갑자기 입을 벌려 찢어질 듯 기괴
 한 곡소리를 낸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가 아사코의 온몸을 덮쳐온다.
 터져 나오는 아사코의 외마디 비명.
 이때, 복도 한 가운데에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아사코의 얼굴로 쏟아진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밝은 빛을 바라보는 아사코
 문 앞에 서서 빛을 등지고 있는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바닥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복도 끝으로 도망쳐 달려가는 아사코
 문 앞의 남자, 아사코를 향해 천천히 손짓한다.
 있는 힘을 다해 실루엣으로 보이는 문 앞의 남자를 향해 달려가는 아사코

52. 공간 (아사코의 꿈)

닫히는 문.
 순간 공간은 정적에 휩싸인다.
 벚꽃이 날리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가득한 공간 안으로 전차가 지나간다.
 전차가 지나가고 나면 남자 다리에 매달린 아사코의 모습이 드러난다.
 눈물을 흘리며 가쁜 숨을 내쉬는 아사코.

아사코

(목이 매어)

아저씨....

남자, 한쪽 무릎을 꿇으며 아사코와 얼굴을 마주한다.
 두 눈에 유리조각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

아저씨

(미소 지으며)

....이젠 아파라고 불러야지.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아사코.
이때,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손이 아사코의 입을 틀어막는다.

53. 병실 (밤)

실습생 1이 비명을 지르는 아사코의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는 광경이 직부감으로 보인다.
필사적으로 아사코를 누르며 방문을 향해 고함을 치는 수인과 그 옆에서 수인을 돕는 실습생 1, 최 간호원
달려 들어오는 실습생 2이 아사코를 짓누른다.
당황한 수인, 직접 주사기를 든다.
거세게 반항하는 아사코의 팔뚝에 박히는 주사기.
흰자위를 드러내며 절규하는 아사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주사기 실린더 안으로 피어오르는 피구름.
그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인의 얼굴이 무척 지쳐 보인다.

54. 구내식당 (밤)

배식구 안에서 흘러나오는 조명이 불 꺼진 구내식당 한 구석을 은은하게 비춘다.
배식구 안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는 최 간호원, 배식구에 기대 서 있는 실습생 1.

실습생 1

(수인을 향해)

아사코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아저씨요....

최 간호원, 배식구로 계란 프라이 접시를 내놓는다.

실습생 1

(접시를 들고 수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져가며)

....대체 그 아저씨가 누굴까요?

배식구 안의 최 간호원, 커피 잔을 내놓고 밖으로 나간다.
실습생 1, 꺼칠한 수염에 지쳐 보이는 수인 옆에 접시를 놓고 앉는다.
수인 앞에는 외출복 차림의 인영이 어깨 위의 눈을 털어내고 있다.

수인

(인영에게)

....제 생각엔 아마도 거기에 이 문제의 열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아사코의 정신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인영.
인영 옆에 앉는 최 간호원.

최 간호원

....근데요, 왜 죽은 사람들이 계속 꿈에 나타나나요?

인영

....인간의 악몽이란 결국 죄의식의 표면화거든.
죄의식을 만들어낸 사건을 일단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다음,
'니 잘못 아니다.' 이렇게 먼저부 한 장만 써주면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고개를 끄덕이는 최 간호원과 실습생 1.

수인

(피곤에 지친 얼굴을 쓰다듬고)
....아사코가 많이 힘들 거예요.

55. 병실 (아침) - 12월 19일

썸 41과 동일.

블라인드를 치는 수인.
침대 앞으로 끌어당겨지는 의자.
침대에 기댄 채 누워 수인을 바라보는 아사코.
의자에 앉아 아사코를 바라보는 수인의 얼굴이 몹시 지쳐 보인다.

수인

(깊은 숨을 내쉬고 나서, 밝은 얼굴로)
아사코...선생님이랑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제 나쁜 꿈도 안 꾸고 무서운 사람들도 안 나타날 거야.
힘들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응?

아사코, 불안한 표정으로 수인을 바라본다.

수인

(피곤한 얼굴로 심곳이 웃으며)
어제랑 똑같이 하면 돼.

스탠드 등을 켜고 불빛의 방향을 꺾는 수인의 손.
음영이 드리워지는 아사코의 얼굴.

수인

자, 맘을 편히 갖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내쉬고...

아사코, 여러 차례에 걸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쉰다.

수인

아사코는, 지금 그 아저씨를 만날 거야.
아사코가 사랑하는 아저씨...
아사코는 지금 처음으로 그 아저씨를 만나는 거야...

눈을 감는 아사코
아사코의 감은 눈꺼풀, 가볍게 떨린다.
아사코를 쳐다보는 수인.

56. 아사코의 회상 (낮 - 화신 백화점 앞)

카메라를 쳐다보던 아사코, 시선을 돌린다.
날리는 벚꽃들.
아사코 옆에서 몸을 숙이는 엄마, 손으로 누군가를 가리킨다.

엄마

아사코, 저기...

아사코 시점으로 벚꽃이 날리는 맑은 하늘아래 손을 흔드는 아저씨 앞으로 지나가는 전차

엄마

아사코야...
새 아빠야...

전차가 옆으로 지나가고 나면 어깨에 사진기를 맨 아저씨, 엄마와 아사코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온다
손을 흔드는 엄마의 원피스가 부드럽게 바람에 날리고, 아사코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아사코 앞까지 다가온 아저씨, 한쪽 무릎을 꿇으며 아사코와 얼굴을 마주한다

아저씨

(미소 지으며)
난 온지 코시로(恩地 孝四郎)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얼굴이 빨개지며 엄마 뒤로 숨는 아사코, 일어서는 아저씨를 올려다본다
아사코 시점으로 가볍게 엄마를 포옹하는 아저씨.
밝은 표정으로 아사코를 쳐다보는 엄마.

57. 아사코의 회상 (밤)

은은한 달빛이 들어오는 엄마의 침실.
침대 위에서 엉켜있는 엄마와 아저씨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한 뒤 뜨겁게 입을 맞춘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서 있는 아사코, 시무룩한 얼굴로 두 사람의 행동을 바라본다.
문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는 아사코.

58. 아사코의 회상 (낮 - 차안)

썸 49과 연결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를 뒤에서 와락 끌어안는 아사코.

아사코

나도 사랑해요, 아저씨!

아저씨

(운전하며 대수롭지 않게)

....나도 사랑해요.

엄마

(아사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젠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사코...

엄마의 손을 탁 치고 다시 아저씨를 끌어안는 아사코.

아사코

(엄마를 한동안 노려보다)

....내가 아저씨랑 잘 거야!

놀라는 엄마.

아사코의 반응에 아저씨도 당황하여 엄마를 본다.

엄마

(아저씨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사코, 너 왜 이래?

....아저씨 운전하시는데 그만해!

아저씨를 끌어안고 있는 아사코의 팔을 잡아당긴다.

엄마의 팔을 거세게 뿌리치는 아사코.

당황하여 아사코를 쳐다보는 엄마.

아사코, 다시 아저씨를 꼭 끌어안고 울며 소리친다.

아사코

엄마, 없어져 버려!

엄마

(화내며)

....아사코, 너 진짜 왜이래!

뭐하는 짓이야!

아사코의 팔을 풀려는 엄마.

그럴수록 더욱 세게 아저씨를 끌어안는 아사코.

아저씨도 아사코의 팔을 조심스럽게 풀려 한다.

기우뚱하는 자동차.

아사코

(울부짖으며)

왜 맨날 엄마만 아저씨 옆에 앉고,

왜 맨날 엄마만 아저씨랑 자!

몹시 놀라는 엄마.

아사코

싫어! 싫어!

엄마 미워!

죽어버려!

이때, 앞창을 통해 갓난아이를 업고 머리에 광주리를 인 노파가 순식간에 가까워진다.

놀라 핸들을 꺾는 아저씨.

충돌 직전 노파와 눈이 마주치는 아사코.

'깡' 소리와 함께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노파.

끼이이익.

뒤돌아 달려들어 아사코를 꼭 끌어안는 엄마.

뒤집히는 풍경, 그리고 이어지는 암흑.

59. 아사코의 회상 (낮 - 도로 위)

눈 내리는 길 위, 앞 유리창을 뚫고 나가 본네트에 머리를 박고 있는 아저씨

흰 원피스를 붉게 물들인 채 눈 쌓인 길 위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엄마의 뒷모습

검붉은 피로 엉겨 흐트러진 엄마의 긴 생머리.

옆으로 전복된 자동차 밑에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인 노파의 시체가 깔려있다

노파의 등에 업힌 채 죽어 있는 갓난아이.

흰 눈 위에 녹아드는 붉은 피.

이때, 겁에 질려 흐느끼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엄마 품안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사코.

아사코를 안고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엄마의 등에는 차 유리창의 파편 수십 개가 박혀 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흰 원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피투성이가 된 엄마, 아사코를 안은 채 마주보고 있다.

아사코

(충격에 휩싸인 채)

....엄...마...

....엄...마...

아사코를 안고 있는 엄마의 피투성이 얼굴이 처참하다.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엄마의 입이 힘겹게 움찔거린다.

60. 병실 (낮)

처음으로 아사코의 목을 통해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아사코

(흐느끼며)

....엄마....

....미안해....

수인,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사코를 안아준다.

수인

아사코, 잘못 아니야...

아사코, 소리 내어 서럽게 운다.

61. 복도 끝 (해질녘)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에 붉게 물든 복도 끝, 창 앞 벤치에 앉은 수인의 그림자가 복도를 따라 길게 뻗어있다.

지친 듯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피우는 수인의 모습이 초췌해 보인다.

실습생 2

(소리)

선생님....

수인, 고개를 들어 실습생 2를 본다.

실습생 2

(수인 옆에 앉으며.)

아사코가 말문을 열었다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는 수인, 누군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실습생 2도 따라 일어나 인사한다.

사람들 몰래 아오이의 영혼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검은 기모노를 입은 원장, 힘없이 걸어가며 가볍게 목레한다.

원장이 멀어지면 다시 자리에 앉는 두 사람.

수인

(담배 한 모금을 빨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무의식 속에 억류되어 있던 감정이 의식계로 방출되는 소산의 과정도 겪었고,
의식도 제대로 돌아왔고...

실습생 2

....그럼 치료가 된 거 아닌가요?

수인

(미소 지으며)

책에는 그렇게 나오지....

그런데 아사코가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
만약 죄의식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생의 의지를 되찾을 것이고...
그리고 정상 생활로 돌아오겠지.

해쓱한 얼굴의 수인,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 천천히 연기를 내뿜는다.
나란히 앉아있는 수인과 실습생 2의 머리 위로 붉은 빛과 어우러져 허공으로 퍼지는 담배연기

62. 원장실 (해질녘)

해질녘의 저녁놀이 붉게 물 든 방 안.

책상 앞에서 아오이의 사진이 든 액자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있는 검은 기모노 차림의 원장

원장실

(침묵을 깨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오이....

...엄만 벌써 보구싶네....

액자 안의 아오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창백한 미소를 흘리는 원장.

63. 복도 (밤)

침대를 밀며 뛰어가는 수인과 간호조장, 실습생 1.

흔들리는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온 몸을 경미하게 떨고 있는 아사코

간호조장

(뛰면서, 수인에게)

선생님 나가실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방금 전부터 갑자기 이러더라구요.

수인

(뛰면서, 심각하게)

응급조치는 하신 거죠?

간호조장

(뛰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네.

64. 응급실 (밤)

응급실 중앙 아사코가 누워있는 침대 주위에 물려있는 수인, 간호조장, 간호원 2, 실습생 1이 직부감으로 보

인다.

모두가 아사코를 살리려고 필사적이다.

카메라, 눈물을 흘리며 허공을 바라보는 아사코 얼굴까지 내려가면,

아사코

(소리)

....엄마, 미안해요....

인서트 - 썸 59와 연결. 아사코를 안고 있는 피투성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럼 맺혀있다.

엄마

(미소 지으며)

괜찮아....

(인자하게)

....아사코 잘못 아니야....

수인

(간호원 2에게)

산소 호흡기.

간호원 2, 산소호흡기의 펌프를 더 힘차게 누른다.

수인, 필사적으로 아사코의 가슴을 내리 누른다.

침대 위에서 축 늘어진 채 떨어지는 아사코의 팔.

간호조장

(소리)

....사망했습니다, 선생님.

동작을 멈추고 간호조장을 바라보는 수인.

아사코의 가슴에서 손을 내리는 수인, 죽은 아사코를 응시한다.

죽은 아사코의 시선도 수인을 향하고 있다.

정적이 흐르는 응급실 안.

힘없이 한 걸음 물러서는 수인.

간호조장

(수인에게)

최선을 다 하셨어요....

(아사코를 내려다보며)

....평화로워 보이네요....

평화로워 보이는 죽은 아사코의 얼굴.
죽은 아사코를 내려다보는 수인.

65. 시체실 (밤)

보관함에 들어있는 죽은 아사코의 평화로운 얼굴.

수인의 나레이션

죽음은 그 어떤 아픔도 치유한다고 했던가...
마지막 순간, 무엇이 이처럼 평화로운 안식을 가져다준 걸까?
...아마도 아사코는 그 안식을 위해 잠시 더 머물렀었나 보다.

힘없이 보관함을 닫는 수인의 모습.

66. 화신 백화점 앞 (밤)

가로등이 환히 켜진 화신 백화점 앞, 눈 내리는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거리를 오가는 종질모에 코트 깃을 세운 신사들과 정장차림의 숙녀 몇몇 사이로 힘없이 걷고 있는 수인.
하늘에서 내리는 함박눈을 따라 카메라 내려오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수인이 보인다.
수척한 모습의 수인, 눈 내리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주위를 살핀 뒤 길을 건너려는데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간다.
천천히 다가오는 전차 쪽으로 가볍게 뛰어가는 수인을 따라 카메라, 직진 트래킹 한다.
전차 앞으로 길을 건너는 수인.
전차가 지나가며 수인의 모습을 가릴 때 '깡' 하고 들려오는 충돌음.
전차 안 승객들, 반대편 창가로 몰려간다.
눈을 뜬 채 쓰러져 있는 수인의 모습이 직부감으로 보인다.
수인이 쓰러져 있는 곳은 썬 56에서 아사코가 아저씨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다.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한두 걸음 내딛다가 다시 풀썩 쓰러지는 수인의 시야에 걱정스런 표정의 전차 안 승객들이 스쳐지나간다.
순간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경직되는 수인,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본다.
수인의 시점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함박눈과 허공으로 올라가며 사라지는 허연 입김이 보인다.

67. 인영의 집 (같은 시간)

불안에 떨고 있는 동원의 눈동자에서 카메라, 뒤로 빠지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소파에 앉아 숨을 헐떡이는 동원(33세,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동원의 뒤, 창 밖에는 함박눈이 고요히 내리고 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테이블 위의 종이를 집어 다급하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동원

68. 병원 앞 (낮) - 12월 16일 (3일 전)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겨울 하늘.

중절모 차림으로 병원 담벼락을 따라 걷는 동원과 정장 차림의 인영.

동원,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인영을 바라보자 인영도 미소로 답한다.

동원의 나레이션

인영과 나는 동경생활을 정리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날카롭게 변해가는 인영을 위해 좀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다.

동원과 인영 옆으로 열을 지어 지나쳐가는 일본군들.

무표정하게 지나치는 동원.

동원의 나레이션

혼란한 시대, 출세만을 지향했던 지난 세월들이 덧없게만 느껴질 뿐이다.

동원과 인영 옆을 스쳐 멀리 사라지는 황색의 무리들.

69. 병원 원장실 (낮)

창틀에 걸터앉아 창 밖을 바라보는 파리한 얼굴의 동원.

동원의 나레이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뭘 위해 살아야 할까?

....인영과 함께라면 뭐든 상관없다.

사랑하는 내 아내만 생각하자. 일단은 그렇게 살자.

창문을 닫는 동원.

잠시 후 -

마주 서있는 원장과 동원.

원장

(동원의 양손을 잡고 올려다보며)

자네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는다구면...

(장난치듯 웃으며)

젊어서 그렇게 이뻐는데 말이야

....많이 아위었어.

....미안하네, 마중도 못나가고.

아오이 혼사 문제를 서두르다보니 내가 정신이 없어서...

소파에 마주 앉는 두 사람.

원장

....사고 이후에 열 달 넘게 연락이 안돼서 걱정 많이 했어....

(동원의 눈치를 보면서)

....자네도 상심이 컸을 테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싶어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

동원의 표정엔 아무런 감정이 없다.

원장

(화제를 돌리려고)

나도 외과의 출신이지만 병원 경영하는 것만도 힘에 부쳐서....

환자 본 지도 오래 됐구....

그래두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

동경제대 교수자리까지 마다하면서 자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줬으니 말이야.

미소 짓는 동원.

원장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다시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동원

적응은요 뭘....

일손도 모자란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죠.

원장

(테이블 너머 동원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

70. 해부실 (낮)

썸 15와 연결

여러 개의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가 팔 든 시체를 씻어내고 있다.

창가 쪽을 쳐다보는 진혁.

곤란해 하는 인영.

황색 군복 차림의 아키야마 소좌, 피곤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운다.

아키야마 소좌

....어찌됐건 간에 민간지역에서 일본군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보나마나 오늘부터 신문에선 이 사건을 두고 억측이 난무할 텐데...
단서 하나 없는 현시점에서...기자들은 뭐라도 하나 캐낼 요량으로
말을 돌려가며 선생한테 질문을 해댈 겁니다.
그러니 선생은 절대로 의학적 소견 이외의 것은 언급하지 마시고...
곤란하다 싶을 때 저한테 머루십시오.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인영.

71. 해부실 앞 복도 (낮)

썸 16과 동일

인영의 얼굴에 터지는 플래시 세례.

인영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자상은 매우 날카롭고 긴 금속에 의한 것입니다.

인영의 뒷모습 너머로 보이는 기자들, 열심히 메모한다.

기자 1

사체를 난도질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곤란해 하며)

....예...죽이고 나서까지...사체를 참혹하게 난도질한 걸로 봐선...
범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자 2

(손을 들며)

선생은 항일 무장 투쟁 단체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영

(당황하며)

....아니요...그런 얘기가 아니라...
추측컨대...아마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닐까....

기자 2

일본군에게 양심을 품은 민간인이라면,
조선 사람의 소행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당황하여 도움을 구하듯이 아키야마 소좌를 바라보는 인영.

아키야마 소좌

(한 발짝 나서며)

대일본제국의 병사가 살해당했다는 것 때문
현재로선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자들을 둘러보며 정중하게)

지금 단계에선 범인을 잡는 것이 우선이니
군 사기나 민심이 동요될 만한 기사는 자제해주시시오.

72. 인영의 집, 방 (밤)

옷장 문을 열어젖히는 동원.

옷장 가득 가지런히 걸려 있는 인영의 옷 너머로 보이는 동원, 외투를 벗는다

동원

(속상한 듯)

첫날부터 부검에 기자회견이라니....몸도 성치 않은데....

인영

(소리)

괜찮아요, 어보....

어차피 지금 경성에선 저 말고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동원

(외투를 옷걸이에 걸으며)

내, 원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 얼마간 좀 쉬어요.

옷장 문을 닫는 동원.

인영

(방안으로 들어오며)

제가 알아서 무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너무 염려마세요.

원장님겐 괜한 말씀 마시구요...

잠시 후 -

창문 앞 작은 티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인영.

동원

(정면을 바라보며 알약을 내민다)

자....

무표정하게 알약을 보다가 손으로 '탁' 쳐내는 인영.

티 테이블 앞에 앉는 동원, 걱정스런 표정으로 인영을 보다가 다시 약병에서 알약을 꺼내 내민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동원을 노려보며 또다시 알약을 쳐내는 인영.

조금 전과는 완전 딴 사람 같다.

아무런 동요 없이 조용히 알약을 꺼내 다시 인영 앞에 내미는 동원.

동원의 눈치를 살피며 알약을 쳐내는 인영, 누그러진 기세다.

알약을 꺼내 인영의 손에 쥐어주는 동원.

동원

(다정하게)

자...여보....

알약을 받아든 인영, 동원의 눈치를 살핀다.

동원

(먹는 시늉을 하며)

어서....

알약을 입에 넣는 인영에게 물을 건네는 동원.

물을 마신 다음 힘겹게 약을 삼킨 인영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주는 동원의 미소가 슬퍼 보인다.

73. 식당 (밤)

주방에 숨어 주위를 살피며 허겁지겁 밥을 훔쳐 먹고 있는 조선인 징용군, 아직은 앳된 소년이다.

한 눈에 봐도 초췌한 탈영병의 모습이다.

먹다 남은 음식을 주머니에 가득 집어넣다가 성에 안 차는지 웃옷을 벗어 주변에 있는 음식을 다 쓸어 넣고 보따리를 싸듯 묶는다.

74. 복도 끝 (밤)

소년병, 군복으로 싼 음식 보따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커다란 창 밖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문 쪽으로 다가온다.

놀라서 창 앞 벤치 밑으로 몸을 숨기는 소년병.

한동안의 정적.

아무도 들어오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년병.

75. 병원 뒤 빨래 건조터 (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군데군데 내걸린 이불 호칭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호칭을 걸으면 소년병이다.

갑자기 멈춰선 뒤 뭔가를 잊었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는 소년병, 음식 보따리를 두고 온 것이다.

소년병, 다시 돌아가려하는데 멀리서 병원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온다.

가까워지는 사람들 목소리.

안타까워하며 어쩔 수 없이 뛰어가는 소년병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이불 호칭에 비친다.

76. 산길 (밤)

멀리 달빛아래, 보기에도 유서 깊은 늙은 서낭나무와 낡은 장승 둘.

나뭇가지마다 걸려 있는 오색 형갈 조각들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바들바들 떠는 소년병, 주위를 살핀다.

뭔가를 발견하고 급히 풀숲으로 몸을 숨긴다.

멀리 누석단 뒤로 누군가 자기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어슴푸레하게 보인다.

들켰나 싶은 불안한 마음에 몸을 낮춘 채 풀숲을 헤치며 눈 쌓인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소년병.

다리가 눈에 푹푹 빠지는 오르막길에서 멈춰 서는 소년병, 언덕 위를 올려다보며 경직된다.

언덕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림자, 소년병을 내려다보며 서서히 일어선다.

머리끝이 쭈뼛 서는 소년병,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눈길을 달려 내려간다.

77. 피막 (밤)

소년병, 지쳤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막 앞에 멈춰 서서 주위를 살핀다.

자신의 숨소리만 들릴 뿐, 정적에 싸인 눈 덮인 산 속.

조용히 피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소년병.

'끼이익' 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

피막 한가운데엔 얼마 전에도 사용했었는지 종이꽃들로 꾸며져 있는 상여가 쓸쓸스레 놓여있다.

상여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는 소년병, 추위가 한풀 가시는지 차가운 숨을 내뿜으며 상여에 기대앉아 짙더미를 끌어당겨 덮는다.

이때, '뿌드득 뿌드득' 눈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점점 가까워진다.

소년병, 긴장한다.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문 앞으로 기어가는 소년병,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순간 똑같이 안을 쳐다보고 있는 붉은 눈과 마주친다.

‘헉’ 소리를 내며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소년병.

이때,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마구 흔들리는 문.

상여 옆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떨고 있는 소년병.

한참을 흔들리다 멎는 문.

이어 눈 밟는 발자국 소리가 피막 둘레를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겉떡은 소년병의 긴장된 시선이 소리를 따라 움직인다.

멈추는 발자국 소리.

정적 속에 소년병이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 들린다.

이때, ‘딸깍’ 하며 상여에 달린 낫쇠장식이 가볍게 부딪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선가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상여에 매달린 종이꽃들을 흔든다.

불안 가득한 눈으로 상여 모퉁이를 돌다가 멈춰 서는 소년병, 가슴이 쿵광거리며 호흡이 가빠온다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

구멍 밖 바로 앞엔 멈춰선 발자국 두 개가 선명히 찍혀있다.

턱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소년병, 눈동지만 굴려서 좌우를 살피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

경직된 몸을 천천히 돌리는 소년병, 다시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간다

이때, 상여 위로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림자가 상여 위를 기어간다.

소년병에게 점점 다가가는 그림자.

문 앞까지 온 소년병이 서둘러 나가려는 찰나, 소년병의 머리를 확 움켜잡는 상여 위의 그림자
머리를 잡힌 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소년병.

소년병

(경악하며)

으아아아악!

날카로운 흥기로 소년병의 목을 찌는 그림자의 손.

소년병이 쓰러지며 나타나는 그림자의 얼굴,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는 차가운 표정의 인영이다

78. 침실 (새벽)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동원, 온 몸이 식은땀으로 젖어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다 옆을 보면 등을 돌린 채 잠들어있는 인영이 보인다

인영의 머리에 꽃혀있는 나비장식의 머리핀.

의심스런 눈초리로 잠든 인영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동원.

이때 몸을 뒤척이다 동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인영,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원, 인영의 이불을 올려주고 다시 눕는다

79. 강의실 (낮) - 12월 17일

선 21과 동일.

인서트 - 피 흘리는 갓난아기를 거꾸로 들고 웃는 검은 옷 마녀를 그린 러시아 민화.

교단 위에서 강의 중인 동원.

동원

....요약하면, 그 당시까지의 과학적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현상들은 각각의 고유한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술과 미신으로 설명되어졌습니다.

동원, 껌도를 넘긴다.

인서트 - 기둥에 묶여 불타는 마녀를 그린 중세의 판화. 마녀의 입에서 라틴어가 적힌 리본 튀어나오고 있다.

동원

예를 들어...신 내림, 병의 등의 현상으로 설명되던 많은 사례들이 실제로는 다중인격 장애에 대한 동양 문화적 표현이 되는 셈이죠.

강의는 들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교복 차림의 진혁 옆의 실습생 2 손을 들고 얘기한다. 쳐다보는 진혁.

실습생 2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스티븐슨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도 결국 다중인격 장애자에 대한 또 다른 문화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동원, 조용히 웃는다.

동원

....여담입니다만, 제가 첫 강의로 십삼, 십사 기 후에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간다니까 주변에서 바짝 긴장하라고 충고해 주던데....

....사실이군요.

학생들, 웃는다.

조교 자리에 앉아 조용히 웃는 수인.

동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가 일천팔백팔십육 년도에 간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니까

십구 세기 말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다중인격의 개념이 존재했던 셈입니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 신화에도 다중인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인격분열 이야기가 그것이죠.

동원의 뒷모습 너무 진지한 얼굴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동원

....다중인격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년시절에 받은 학대나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끔찍한 사고의 목격 등의 정신적 외상을 들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심한 학대나 정신적 외상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자들의 특이한 점은 숨겨진 성격 중 특히....

(뒤로 돌아 칠판에 '奮怒' 라고 쓴 뒤 학생들을 향해)

....분노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자해나 자살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외부로 향할 때 이 정신적인 질병이 동반한 분노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해나 자살에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경우도 종종 보고 되고 있으니까요

동원, 뒤로 돌아 칠판을 지우고 '甲', '乙' 이라고 크게 쓰고 두 글자 사이에 길게 선을 하나 긋는다.

동원

....일반적인 증세로 다중인격 장애자 내부의 인격체 갑과 인격체 을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갑이 한 행동을 을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하나의 신체에 두 개의 인격....

그러니까 내 몸을 나도 모르는 누군가와 나눠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동원

....대개의 경우 갑과 을은 서로를 인식 못하지만

....그러나 드물게 갑은 을을 인식하는데 을은 갑을 인식하지 못한다던가,

혹은 갑과 을이 서로의 존재를 어렵풋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80. 인영의 진료실 (밤)

표정 없이 전등을 쳐다보는 외출복 차림의 인영 얼굴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한다

'웅웅' 거리는 소리와 함께 껌뻑거리는 전등.

81. 병원 앞 정원 (밤)

썸 25와 동일

하늘에선 내리는 하얀 눈

입구에서 손에 촛불을 들고 하나 둘씩 병원을 나오는 사람들

정전이지만 모처럼의 휴식에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짓는다

입구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인영이 즐거워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군복으로 싼 음식 보따리에서 꺼낸 누룽지를 먹으며 인영 옆에 다가서는 최 간호원

최 간호원

(인영의 눈치를 보며)

누가 누룽지를 짜 냈더라고요

(수줍은 표정으로 음식보따리를 내밀며)

....선생님도 하나 잠깐보세요

인영

....그럼 하나 먹어볼까?

누룽지를 씹으며 최 간호원을 쳐다보는 인영, 맛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준다

이때, 갑자기 환하게 불이 밝혀지는 정원

벤치에 엉켜 앉아 있는 실습생들

실습생들

(이슈워하며)

으아....안돼....

재미있어하며 웃는 인영과 최 간호원

82. 차 안 (밤)

앞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발을 와이퍼가 쓸어낸다

운전하는 증위와 심각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복 차림의 아키야마 소좌

증위

(창 밖의 눈을 쳐다보며)

....엄청 오네요

아무 말 없이 창 밖을 응시하는 아키야마 소좌

아키야마 소좌

....기자들 몰리기 전에 더 빨리 밟아.

83. 피막 (밤)

네댓 명의 순사들이 지키고 있는 피막 안으로 들어가는 아키야마 소좌와 중위

순사의 안내를 받으며 피막 안으로 들어오는 아키야마 소좌, 사방으로 튀어있는 핏자국들을 둘러보며 거적
덮인 소년병의 시체 앞까지 다가선다.

쭈그려 앉으며 거적을 들추는 아키야마 소좌

84. 해부실 (낮) - 12월 18일

군복 차림의 아키야마 소좌가 무표정한 얼굴로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인영

(소리)

사인은 인후부 자상에 의한 출혈, 그리고....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등지고 시체를 부검하는 인영, 시체의 처참함에 말문이 막히는지 잠시 시
체를 보다가 아키야마 소좌에게 얘기한다.

인영

....너무 참혹하네요.

아키야마 소좌

(턱을 문지르며, 혼잣말로)

....이번엔 조선인 탈영병이라....

조선인....

일본군....

85. 인영의 진료실 (해질녘)

붉은 노을빛으로 물든 인영의 진료실 안.

레코드 판 위에 바늘을 얹는 동원의 손.

눈을 감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인영, 지쳐 보인다.

크게 한 숨을 내뿜는 인영, 잠시 눈을 감은 채로 앉아있다.

전축 돌아가는 소리에 이어 들리는 베르너의 가곡 'Hiden-roslein(들장미)'가 감미롭다.

잠시 후, 프레임 인되어 인영의 어깨를 잡는 동원의 손.

인영,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뜨고 나서 고개를 돌려 위를 올려다본다.

인영

(눈을 부비며)

언제 들어오셨어요?
문소리도 못 들었는데....

카메라, 인영이 안고 있던 사진 액자를 들어올리는 동원의 손을 따라가면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바라보는 동원이 보인다.

동원

(웃으며)

무슨 사진이 이렇게 커?
당신 이 사진 어디서 찾았어?

재밌다는 듯 웃고 있는 인영.

동원, 무릎을 꿇혀 의자에 앉은 인영과 눈높이를 맞춘다.

동원

(액자를 들여다보며)

야- 이게 언젠적 사진이야...

인영

(액자를 들여다보며)

우리 약혼식 날 찍은 사진이잖아요.

동원의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액자.

동원

(소리)

아이고- 햇병아리 티가 풀풀 나네....

(재밌다는 듯 웃으며)

....이거 좀 챙피한데....

인영

뭐가요?

난 당신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젤루 맘에 드는데.

동원

(책상 위에 액자를 놓으며)

집에서건 병원에서건 늘 이렇게 붙어있는데
진료실에 이런 액자까지 갖다놓고...
(책상 위에 걸터앉아 좋으면서 싫은 척)
...사람들이 흉봐요, 흥.

두 사람, 잠시 서로 마주보다 웃음을 터트리는 두 사람.

인영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은 채)
...사실 아까까지는 좀 피곤했는데...
이렇게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깐 좋네요...

동원

(미소 지으며)
그래?

인영

네...아직 어린 애던데...
난도질당한 채 죽어있는 소년병 모습이 너무 참혹했어요...
...꼭 범인이 잡혀야 할 텐데...

동원

(놀리며)
...소년병?

동원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친다.

86. 시체실 앞 복도 (밤)

계단에서 내려오는 동원에서 카메라, 팬 하면 복도를 걸어가는 불안한 표정의 동원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긴 동원의 뒷모습으로 다가가는 카메라.

87. 인영의 진료실 (해질녘)

핏빛처럼 붉은 노을빛으로 물든 인영의 진료실 안.
전축 돌아가는 소리에 이어 들리는 베르너의 가곡 'Hiden-roslein(들장미)'.
책상 앞에 앉아 마치 누군가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인영.
풀어헤친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인영의 낯 나간 얼굴이 섬뜩하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인영.

88. 시체실 (밤)

시체 보관함 앞.

긴장한 얼굴의 동원.

보관함 문을 열고 시체를 꺼내는 동원, 얼굴이 보관함 문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시체에 덮인 천을 걷어내자 시체의 얼굴이 드러난다.

목에 흉터가 난 소년병의 시체, 꿈속에서 인영에게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소년병이다

놀라는 동원의 얼굴 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친다.

89. 병원 앞 정원 (밤)

눈이 소복이 쌓인 정원, 백열등 불빛에 반짝이는 눈빛이 아름답다.

그 앞 벤치에 앉아 두터운 정장차림으로 앉아 있는 동원과 동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인영

동원과 인영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간헐적으로 뿜어져 나온다.

지쳐 보이는 동원의 표정이 자못 심각하다.

동원

(정면을 응시한 채)

....우리....다시 돌아갈까?

인영

(머리를 떼고 한동안 동원을 바라보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동원

....여기 온 뒤부터 자꾸 이상한 꿈만 꾸고....

인영

....무슨 꿈이요?

동원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냐....

(인영을 바라보며)

나, 당신 믿어.

인영

(재밌다는 듯 웃으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동원

(애써 미소를 띠며)

....당신 믿는다구....

인영

(동원을 바라보다 다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전 어디라도 좋아요.

당신만 있으면....

가로등 아래 내리기 시작하는 눈.

살포시 눈을 감는 인영.

동원도 인영에게 살며시 머리를 기대 뒤, 살며시 눈을 감는다.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하얀 눈.

함박눈이 내리는 정원, 정답게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고요하기만 하다

90. 해부실 (동원의 꿈)

얼굴을 가린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대 주변으로 뇌수술 중인 의사 1, 의사 2의 뒷모습
물 고인 타일바닥 군데군데에 피 묻은 거즈들이 작은 소용돌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상보다 높게 위치한 견학석 난간, 동원이 몸을 낮추고 수술 장면을 훑쳐보고 있다.
뼈를 깎아내는 소리, 살을 잘라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해부실 안에 나지막이 울린다.
이때, 갑자기 환자의 머리에서 하얀 피가 쏟아져 나오며 격렬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

하지만 의사 1, 2는 아무런 동요 없이 수술만 할 뿐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동원.

환자의 발작이 멈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의사 1의 목에 메스를 박는 환자.

목을 쥐고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의사 1의 얼굴, 바로 동원 자신의 얼굴이다

난간에 붙어 놀라는 동원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환자와 의사 2, 모두 동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사색이 된 동원, 주저앉는다.

이때, 난간 아래서부터 떠오르는 긴 머리.

동원,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지만 벽으로 막혀 있다.

점점 다가오는 여자의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 섬뜩한 표정의 인영이다

91. 인영의 집, 침실 (밤)

눈을 뜨는 동원, 눈앞의 광경을 보고 숨이 턱 막힌다.

코앞엔 꿈과 같이 섬뜩한 얼굴의 인영이 동원을 노려보고 있다.

잠시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

동원이 손을 뻗어 인영의 얼굴을 만지려 할 때,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는 인영.

인영이 사라진 자리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오른다.
동원을 부르듯 나풀거리며 인영을 따라가는 나비.
동원, 인영을 쫓아나간다.

92. 병원 계단 (밤)

나비 한 마리가 나풀대며 인영의 뒤를 따른다.
잠옷 차림의 인영, 달빛을 받으며 꿈꾸는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간다
몰래 숨어 계단을 내려가는 동원 옆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 외출복 차림의 최 간호원, 소년병의 군복을 가져
가려는지 들고 있다.

최 간호원

(꾸벅 인사를 하고)

선생님, 어디 가세요...?

동원, 정신없는 사람처럼 최 간호원을 쳐다본다.

93. 숲 속 (밤)

나비를 쫓아 수풀을 헤치는 손.
땀으로 범벅이 된 동원, 수풀 사이로 나와 좌우를 살핀다.
인영에게로 안내해주던 나비는 온데간데없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동원.
숲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날린다.
기쁜 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내딛는 동원의 모습이 멀리 부감으로 보인다

94. 산 속 (밤)

바람결에 흔들리며 '웅웅' 소리를 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
떨어진 나뭇잎이 허공에서 호를 그리다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영의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표정이 사라진 차가운 얼굴의 인영, 나비 장식의 머리핀으로 아래를 향해 반복적으로 찍어댄다
인영 아래에서 올라온 손이 인영의 왼팔을 움켜쥐는다.
인영 아래 깔린 채 경련을 일으키듯 버둥거리는 작은 체구의 여자.
여자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진다.
인영의 팔을 부여잡은 손이 깊은 손톱자국만을 남긴 채 스르르 떨어진다
인영의 팔에서 흐르는 피.
인영의 시점으로 끌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여자, 최 간호원이다.

동원

(소리)

여보...

굳은 표정의 동원.

머리핀을 움켜쥔 두 손을 치켜든 채 천천히 동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인영.

하지만 초점 잃은 인영의 눈동자는 동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인영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동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다.

동원

....그만 해, 여보...

낮이 나간 채 아무런 감정 없이 머리핀으로 죽은 최 간호원의 이마를 쏘아대는 인영.

'탁...탁...탁...탁...' 산 속 적막을 깨며 뼈 쪼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인영 앞에 다가가 마주서는 동원.

최 간호원 시체 위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인영의 눈빛이 점차 돌아온다

동원

(눈동자에 눈물이 맺힌 채 미소 지으며)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해....

응...?

동원 앞에 서있는 슬픈 눈빛의 인영.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인영을 향해 손을 뻗는 동원.

인영, 머리핀을 쥔 손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머리 위로 치켜 올려지는 나비 장식의 머리핀.

자신의 배를 향해 머리핀을 내리 찌는 인영.

동원

(달려들며)

안돼!

엇켜있는 두 사람, 잠시 멈춰있다.

머리핀이 꽂혀있는 동원의 배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머리핀을 쥐고 있는 인영의 손을 푼 뒤 앞으로 고꾸라지는 동원.

페이드 아웃

잠시 후 -

움짤한 뒤 천천히 눈을 뜨는 동원, 무척 괴로워한다.

상체를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는 동원과 그 뒤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최 간호원이 부감으로 보인다
최 간호원 시체를 발견하고 놀라는 동원.

동원

(시체를 흔들며)

최 간호원! 최 간호원!

최 간호원 목에 손을 대보고 죽었음을 인정한 동원,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옷을 보다가 배에 꽂혀있는 머리
핀을 발견한다.

동원,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며 시체를 내려다본다.

잠시 후 -

최 간호원의 시체를 끌고 가는 동원.

낭떠러지 아래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시체.

가쁜 숨을 내쉬며 어둠에 휩싸인 낭떠러지를 응시하는 동원.

95. 인영의 집 (새벽) - 12월 19일

피투성이가 된 채 배를 움켜쥐고 인영을 찾으려 집안 곳곳을 뒤지는 동원

동원

여보...

여보...

인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96. 인영의 집 (아침)

텅 빈 방.

텅 빈 복도.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긴 외출복 차림의 동원, 옆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 위에 인영의 모자가
놓여있다.

괜한 눈빛의 동원, 손에 쥔 나비 장식 머리핀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영

(소리)

여보

동원, 고개를 들면 맞은편에 아름다운 자태의 인영이 앉아있다.

인영

(미소 지으며)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있는 인영을 보고 놀람과 동시에 안도하는 동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동원

(눈물을 감추며)

....당신 기다리구 있었지....

....당신 모습 안 보이길래....날 버리구 도망갔나 걱정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는 동원.

환한 웃음으로 답하는 인영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동원

여보, 우리....일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도쿄 말고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갈려는데....

....에사시?...시리아자키로 갈까?

당신은 어디가 좋소? 니치난....

인영

(동원의 팔을 가리키며)

당신, 팔....

동원의 팔을 감싼 하얀 와이셔츠에 천천히 베어 나오는 네 줄의 검붉은 핏자국

동원, 의아한 표정으로 와이셔츠 소매를 걷는다

팔뚝에는 10센티 길이의 선명한 손톱자국 네 줄이 깊이 패여 있고,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동원, 자신의 팔뚝을 보며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기억해내려는데 환영처럼 최 간호원의 손이 화면 밖에서 들어와 동원의 팔뚝을 잡고 손톱으로 핏자국을 핏기 시작한다.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동원.

인서트 - 썸 94. 산 속과 동일. 동원의 시점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최 간호원의 끔찍한 얼굴. 카메라, 동원의 팔뚝을 핏기 하는 최 간호원의 손에서 붉은 핏자국이 사라진 차가운 얼굴의 동원이 나비 장식 머리핀으로 최 간호원을 반복적으로 찍어댄다

동원, 놀라 고개를 번쩍 들면 앞에 앉아있던 인영의 모습이 온데간데없다.

눈앞이 하얘지는 동원, 벌떡 일어나 인영을 부른다.

동원

(큰소리로)
여보! 여보!

이때, 동원의 얼굴 위로 강의 소리가 겹쳐진다.

동원

(강의 소리)

....일반적인 증세로

다중인격 장애자 내부의 인격체 갑과 인격체 을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서트 (과거) - 썸 94. 산 속과 동일. 머리 위로 치켜 올려진 날카로운 머리핀을 든 손에서 카메라, 붓
다운 하면 낮이 나간 얼굴의 동원이다. 날카로운 머리핀으로 자신의 배를 내리 찌는 동원

동원

(강의 소리)

....갑이 한 행동을 을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의 신체에 두 개의 인격...
그러니까 내 몸을 나도 모르는 누군가와 나눠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악하는 동원의 얼굴 위로 강의 소리 계속된다.

동원

(강의 소리)

....대개의 경우, 갑과 을은 서로를 인식 못하지만
....그러나 드물게 갑은 을을 인식하는데 을은 갑을 인식하지 못한다던가,
혹은 아주 드물게, 갑과 을이 서로의 존재를 어렵듯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인서트 (과거) - 썸 77. 피막과 동일. 소년병의 머리를 움켜잡은 손 소년의 뒤에서 날카로운 머리핀으
로 소년병의 목을 찌는 그림자의 손. 쓰러지는 소년병 뒤로 나타나는 그림자의 얼굴, 아무런 느낌도 감
정도 없는 차가운 표정의 동원이다.

큰 충격에 휩싸여 망연자실한 동원, 낮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린다.

동원

맞어...인영인 없어...
....인영인 일본에서 죽었어...
....일본에서....

텅 빈 거실 소파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동원.

97. 산 길 (낮)

햇빛을 등지고 최 간호원의 시체를 내려다보는 군복 차림의 아키야마 소좌

길옆으로는 5, 6미터 정도의 언덕이 있다.

겨울 햇살 아래에서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키야마 소좌.

시체가 떨어져있는 언덕 밑 둔덕에서 내려오는 아키야마 소좌.

중위

....왜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길에다가 시체를 던져놨을까요?

아키야마 소좌

시체 은폐가 목적이었겠지....

범행을 저질렀던 시간이 밤인데다가 날까지 흐렸으니,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라면...아마도 저 위에선 여기가 상당한 낭떠러지로 보였을 거야...

(혼잣말로)

....근데 왜 이번엔 간호원이지...?

중위

....최근의 살인사건을 모방한 단순 원한 사건이 아닐까요?

언뜻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희생자가 일본군이 아닌 것도 그렇구....

아키야마 소좌

(턱을 문지르며)

아니...내가 보기엔 다르지 않아.

동일범이야.

이때, 원가를 들고 다가오는 병사 1.

병사 1

(소년병의 군복을 내밀며)

시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년병의 군복을 집어 드는 아키야마 소좌, 원가 생각난 듯이 군복을 펼쳐본다.

아키야마 소좌

(중위를 쳐다보며)
....먼저 번 조선인 탈영병이 상의를 입고 있었는가?

중위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오,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기는 아키야마 소좌.

아키야마 소좌

(흔젓말로, 천천히)
....두 번째 희생자의 군복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98. 인영의 집 (해질녘)

현관 입구에서 동원의 시점으로 보이는 텅 빈 집안 풍경.
창백한 얼굴의 동원, 카메라를 응시한 채 수화기를 들고 있다.

동원

(담담한 어조로)
아키야마 소좌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누구시죠?’)
....안생병원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무척 중요한 일 때문인데 언제쯤 통화 할 수 있을까요?
(‘뭐 한...두 시간 정도 후엔 들어오시겠죠.’)
....근자에 벌어진 세 차례의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집니다.
절 꼭 잡으려 해주십시오.

전화를 끊으려는 수화기 든 동원의 손이 멈춘다.
거울에 비친 동원의 얼굴.

동원

....아니, 제가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99. 차 안 (해질녘)

앞 창문 너머로 시야에 들어오는 황혼녘 풍경.
심각한 표정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동원의 모습 위로 강의 소리가 겹쳐진다.

동원

(강의 소리)

...다중인격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신적 외상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동원.

동원

(강의 소리)

그리고 이 질환자들의 특이한 점은 숨겨진 성격 중 특히 분노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한 때는 자해나 자살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외부로 향한 때 이 정신적인 질병이 동반한 분노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그러지는 동원의 얼굴에 눈물이 어린다.

앞 창문 너머의 풍경은 어느새 어둠에 몰들어 있다.

동원

(강의 소리)

왜냐면 이 분노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되기 때문이죠
자해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경우도 종종 보고 되고 있습니다.

슬픔에 찬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동원.

인서트 - 헤드라이트를 켜고 길 위를 달리는 차.

'쿵' 하는 소리에 차를 세우는 동원, 잠시 운전석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는다.

100. 차 안 (저녁)

어둠 속에 빛나는 커다란 헤드라이트 앞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슴이 쓰러져있다

차 문 열고 닫는 소리에 이어지는 눈 밟는 발자국 소리.

무언가를 잡아 다니는 손.

헤드라이트 불빛 영역 안으로 들어온 발을 따라 카메라 틈 업 하면 보이는 것은 동원이 아닌, 차가운 표정의 인영이다.

이때, 멀리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이 어슴푸레 보인다.

다가가는 인영, 무의식적으로 머리에서 날카로운 핀을 뺀다.

스르륵 풀어져 흘러내리는 인영의 긴 머리칼.

101. 헌병대 앞 (밤)

문을 열어젖히며 나오는 아키야마 소좌와 중위, 군인들.

눈 내리는 헌병대 앞 풍경.

아키야마 소좌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며)

....분명 안생병원 김동원이라고 했지?

군인 2

네.

아키야마 소좌

만약 김동원이 여기에 오면 일단 잡아놓고 있어.

아키야마 소좌와 중위, 계단을 내려온다.

102. 인영의 집 (밤)

썸 67과 동일

불안에 떨고 있는 동원의 눈동자에서 카메라, 뒤로 빠지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소파에 앉아 숨을 헐떡이는 동원의 모습이 보인다.

동원의 뒤, 창 밖에는 함박눈이 고요히 내리고 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테이블 위의 종이를 집어 다급하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동원

편지를 쓰는 동원의 손.

인서트 - '納得(납득)하기 힘들겠지만, 내 안에는 김동원과 김동원이 아닌 殺人犯(살인범), 두 사람이 存在(존재)하고 있습니다. 去頭截尾(거두절미)하고 近者(근자)에 發生(발생)한 連鎖殺人(연쇄살인)의 犯人(범인)은 나, 김동원입니다. 只今(지금)은 내가 내 自身(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버린 狀況(상황)입니다. 秋山(아키야마) 少佐(소좌)님, 속히 나를 잡아 가둬 주십시오. 그리고 此後(차후) 내가 하는 모든 言(말)과 行動(행동)은 믿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連鎖殺人(연쇄살인)의 犯人(범인)은 납니다....'

편지봉투 위에 써있는 글씨, '秋山 少佐 様 (아키야마 소좌 님)'

못을 내리치는 망치.

반 썸 박힌 못을 옆으로 쳐서 꺾는 동원의 손.

103. 병원 앞 (밤)

계단에 앉아있는 진혁과 그 앞에 서 있는 군복 차림의 아키야마 소좌
머리카락의 반이 하얗게 센 창백한 얼굴의 진혁이 위를 올려다보고 있다

진혁

....김동원....선생님이요?

104. 인영의 집, 침실 (밤)

침대 위 한쪽 모서리 기둥에 가죽 끈으로 왼팔을 묶는 동원, 남은 오른팔도 이미 만들어 놓은 매듭에 넣고
힘껏 잡아당기자 고정된다.
두 다리는 이미 다른 기둥에 묶인 상태다.
눈을 감고 길고도 깊게 숨을 쉬는 동원.

105. 인영의 집 앞 (밤)

계단을 오르는 아키야마 소좌.
문을 두드리는 아키야마 소좌의 손.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키야마 소좌, 다시 문을 두드린다.

아키야마 소좌

가네다 선생!

....가네다 선생!

106. 인영의 집, 침실 (밤)

격렬히 흔들리는 침대.
'그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가죽 끈으로 묶여있는 손과 발이 미친 듯이 요동친다.

107. 인영의 집 (밤)

'딸깍' 하고 열리는 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키야마 소좌의 손.
현관 앞 간유리 문을 통해 보이는 아키야마 소좌, 안쪽을 기웃거린다

아키야마 소좌

....가네다 선생....

간유리 문 앞의 아키야마 소좌, 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다.

아키야마 소좌

....가네다 선...

순간, 갑자기 열리는 문.

카메라, 틸 업하면 인영의 모습이 드러난다.

놀라는 아키야마 소좌.

인영

(태연하게)

....무슨 일이시죠, 이 밤중에 ?

미로와 같은 복도를 나란히 걷는 인영과 황색 군복 차림의 아키야마 소좌

인영의 손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떨어진다.

눈치 채지 못하는 아키야마 소좌.

아키야마 소좌

(인영을 살피며)

....김동원 선생은 안 계시나보죠?

인영

낮에 나가셔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좀 늦으시네요

아키야마 소좌

....아...네....

....그렇군요

아키야마 소좌

(떠보듯이)

....김동원 선생이랑 결혼하신지가....얼마나 되시죠?

인영

(미소 지으며)

아직 일년 채 안됐어요

작년 선달에 일본에서 식을 올렸으니까....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마침 일주일 뒤면 결혼기념일이예요

앉으세요, 차 한 잔 갖다 들릴게요.

소파에 앉는 아키야마 소좌, 인영의 손목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발견하고 흠칫 놀란다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인영.

테이블 위에 놓인 '秋山 少佐 様 (아키야마 소좌 님)' 라고 적힌 편지봉투를 발견하는 아키야마 소좌, 부엌 쪽을 살피며 편지를 꺼내 읽는다.

아키야마 소좌

(편지를 읽으며)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주머니에 편지를 구겨 넣는 아키야마 소좌, 확신을 갖고 품 안의 총을 꺼낸 뒤 일어나 천천히 부엌 쪽으로 다가간다.

아키야마 소좌

(멀리 떨어진 인영에게)

선생님....

인영

(멀리 부엌에서)

네....

아키야마 소좌

제가 알기론....

....김동원 선생께서는....

인영

(바로 뒤에서 소리)

네?

아키야마 소좌, 깜짝 놀라 뒤로 도는 순간 치켜들었던 머리핀으로 아키야마 소좌를 향해 내리כות는 인영.

가슴을 부여 쥐며 넘어지는 아키야마 소좌, 반사적으로 권총을 꺼내 발포한다.

'탕' 소리에 깨지는 전등.

순간, 어두워지는 거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창호지 문이 엷어지면서 그 너머로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총을 겨눈 채 일어나는 아키야마 소좌의 모습이 보인다.

총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는 아키야마 소좌.

응급치료를 마치고 아키야마 소좌 가슴에 붕대를 감아주는 실습생 1.
데스크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중위, 그 옆으로 군인 1, 2가 서 있다

중위

....그래! 범인이 도주했어!
....안생병원으로 빨리 인원 보내!

전화를 끊는 중위.

아키야마 소좌

(상처를 잡은 채 이맛살을 찌푸리며, 실습생1에게)

고맙네....

(중위에게)

....일단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

(실습생 1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지금 또 누가 병원에 있지?

실습생 1

....환자들하구...원장님 계시구요....

실습생 한 명은 부검한다고 해부실루 갔구....

아키야마 소좌

(놀라 말을 자르며)

부검?

109. 해부실 (밤)

아래를 내려다보고 놀라는 실습생 3.

실습생 3

(혼잣말로)

....어...뭐야...?

최...간호원이....

카메라, 뒤로 빠지면 실습생 3 뒤에 서 있는 인영.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만 가우뚱히 기울여 최 간호원의 시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차가운 인영의 모습이 섬뜩하다.

천천히 시선을 올려 초점 없는 눈동자로 실습생 3을 바라보는 인영.

110. 데스크 앞 (밤)

서둘러 웃웃을 입는 아키야마 소좌.

아키야마 소좌

난 부검을 의뢰한 적이 없어.

(총을 챙기며)

척쇼(젠장)....

해부실을 향해 황급히 달려가는 아키야마 소좌와 뒤를 따르는 중위와 군인들

실습생 2

(다급한 소리)

우석아!

실습생 1, 입구 쪽을 쳐다보면 실습생 2가 누군가를 업고 진혁, 간호원들과 함께 달려온다.
서둘러 옆에 있던 이동용 침상을 끌어내는 실습생 1.

실습생 2

(울먹이며)

이수인 선생님이야!

급하게 이동용 침상으로 옮겨지는 수인.

실습생 2

(북받치는 눈물을 참으며, 놀라는 실습생 1에게)

차에 치셨대.

이동용 침상 위에서 눈은 떴지만 죽은 새처럼 축 늘어지는 수인.

침상 옆에서 울먹이며 당황하는 간호원들.

실습생 1

(당황하며)

....어떻게 하지? 지금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일단 선생님 응급실로 모시고 가고....

(불현듯, 진혁에게)

진혁이 넌 어서 가서 원장님 모셔와.

진혁

(당황하며)

예.

진혁, 원장실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111. 해부실 앞 복도 (밤)

지하로 연결된 복도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아키야마 소좌와 중위 군인 1, 2

112. 계단 (밤)

부리나케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는 진혁.

113. 응급실 (밤)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수인의 얼굴 위로 응급처치를 해보려는 실습생들과 간호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린다.

주변의 소리가 점차 멀어지며 백화점 앞 전차소리가 커진다.

죽어가는 수인의 얼굴 위로 스쳐지나가는 전차의 불빛들.

수인의 시점으로 보이는 백화점 앞 전차.

인서트 - 썸 66. 화신 백화점 앞과 연결. 전차 안 승객 사이로 창백한 모습의 아사코가 보인다.

아사코

(소리)

...사랑해요, 아저씨.

식어가는 창백한 얼굴의 수인.

114. 원장실 밖 (밤)

문을 열어젖히는 진혁의 손.

115. 해부실 (밤)

열리는 문.

충을 들고 들어오는 아키야마 소좌와 군인들, 무언가를 보고 놀란다.

116. 응급실 (밤)

침상 위에서 축 늘어진 채 떨어지는 수인의 팔.

동공이 완전히 풀리는 수인.

117. 원장실 (밤)

질겁하는 진혁의 얼굴.

진혁

(놀란 눈으로)

....위....원장....님....

카메라, 뒤로 빠지면 문 앞에 주저앉은 진혁을 가리며 프레임 인되는 원장의 시체.
흰자위를 치켜뜬 채 목매달아 자살한 원장의 시체가 천장에 매달려 '끼익끼익' 흔들거리고 있다
이때, 멀리서 들려오는 단발의 총성

118. 해부실 (밤)

총을 겨누고 있는 아키야마 소좌와 군인들 뒷모습에서 카메라 붐 업 하면 해부대 위에서 실습생 3을 깔고
앉아 머리핀을 쳐들고 있는 표정이 사라진 창백한 인영.
깨진 유리창에서 들이치는 눈보라에 인영의 긴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휘날린다
실습생 3, 해부대 위에 누워 피를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아키야마 소좌

(소리)

칼 내려놔!

소좌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지 머리핀을 쳐들고 실습생 3의 목을 겨누고 있는 인영.

아키야마 소좌

칼 내려놓으라고!

카메라, 머리핀을 치켜든 인영의 손에서 팔을 따라 얼굴까지 붐 다운 하면 인영에서 괴로움에 눈물짓는 동원
으로 변해있다.

그러나 동원 자신의 몸은 이미 제어 할 수 없는 상태다.

카메라, 구원을 바라듯 손을 뺀 동원의 팔을 따라 올라가면 미친 듯이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차가운 표정의
인영이 보인다.

아키야마 소좌

(총을 들이대며)

....그 칼 당장 내려놓으라니까!

동원

...제발...날 멈추게 해 주세요!
...내 안에 인영이 있어요...죽은 인영이!
제발...날 막아 주세요, 제발...

눈물범벅이 되어 애원하는 동원.

아키야마 소좌

정신 차려!
당신은 김동원이 아니야!
김인영의 남편, 김동원은 일 년 전에 일본에서 죽었어!
당신은...김인영이야!

아키야마 소좌를 쳐다보는 동원.

아키야마 소좌

김동원은, 김인영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구!

굳어버리는 동원.

119. 회상 (과거)

인서트 (과거) - 썸 69. 원장실. 양손을 마주 잡고 서있는 원장과 인영.

원장

....자네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는구만...
젊어서 그렇게 이랬는데 말이야...

인서트 (과거) - 썸 102. 인영의 집. 종이를 접고 뒷면에 커다랗게 '秋山 少佐 様(아키야마 소좌 님)'이라고 쓰는 손. 카메라, 털 업 하면 인영의 얼굴이다.

인서트 (과거) - 썸 1. 흑백 기록 영화와 동일. 카메라를 끄는 손. 수술실 타일바닥 작은 구멍들에서 흘러나오는 물. 물 고인 타일바닥에 피 묻은 거즈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소용돌이들. 허영게 두개골을 드러낸 채 누워 있는 일본군 대장. 메스를 잡는 손. 침대 위에서 허리를 세우고 메스를 치켜드는 대장의 뒷모습. 놀라 비명을 지르는 인영을 향해 메스를 휘두르는 대장. 그 앞을 막아서는 동원. 동원의 목에 깊숙이 박히는 메스. 물 고인 타일바닥에 붉은 피를 쏟아내며 인영의 품에서 죽어가는 동원, 눈물을 흘리며 인영을 바라보며 뭔가를 말하려다 눈을 뜬 채 숨을 거둔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인영이 오열할 때, 장교의 지시에 따라 일본군들이 인영과 동원을 떼어놓는다. 대충 서둘러 동원의 시체를 처리하는 군인들.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인영을 군인들이 강제로 끌고나간다.

인서트 (과거) - 장례식장. 영정사진을 가리고 서서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는 인영, 낮이 나간 듯하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인영 뒤로 보이는 영정사진. 썸 85. 인영의 진료실에 나왔던 동원의 사진이다. 문상 온 일본군들, 인영을 살피며 뭔가를 은밀히 속삭인다.

인서트 (과거) - 정신 병원. 독방에 갇힌 인영, 무거운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내보내달라고 소리친다. 철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일본군들 사이로 인영의 외침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인서트 (과거) - 정신 병원. 좁은 문구멍으로 인영을 관찰하는 일본군 장교의 눈. 닫히는 문구멍. 팔다리가 묶인 정신병자 옷을 입고, 두 눈을 치켜뜬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인영 앞에 유령처럼 홀연히 나타나는 동원의 생전 모습. 어린아이처럼 미소 짓는 인영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

120. 해부실 (새벽녘) - 12월 20일

눈물을 흘리는 인영.

인영

(눈물을 닦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참 멀리 있네요...

고개를 내려 자기의 손에 들린 머리핀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움켜쥐는 인영.

해부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진혁.

카메라, 아키야마 소좌와 군인들 뒤에서 떠오르면 머리핀을 치켜드는 인영이 보인다.

진혁

(놀라 혼잣말로)

...선생님...

아키야마 소좌

그만 뒤!

인영, 자신의 쇠골 사이 움푹 패인 기관에 메스를 찢러 넣는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인영의 얼굴 위로, 썸 83에서 동원과 함께 들었던, 감미로운 'Hiden-roslein(들장미)'가 흐르며 회상으로 들어간다.

인서트 (과거) - 썸 85. 인영의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 인영 옆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다정하게 사진 액자를 들여다보는 동원의 모습이 유령처럼 사라지고 인영만 홀로 남는다.

인서트 (과거) - 썸 96. 인영의 집, 거실. 소파에 인영과 마주 앉아 있는 동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있다. 동원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면 여행용 가방 옆에 홀로 앉아 미소 짓는 쓸쓸한 모습의 인영만 남는다.

인서트 (과거) - 썬 89. 병원 앞 정원. 벤치에 앉아 서로 머리를 기대는 채 눈을 감고 있는 동원과 인영이 서 동원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진다.

카메라, 직부감으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인영을 향해 서서히 내려온다.
인영 주위로 몰려드는 진혁과 아키야마 소좌, 군인들.
그렇거리는 소리를 내며 죽어가는 인영, 서서히 눈빛이 희미해진다.
초점 없이 멍해지는 인영의 눈에선 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조금씩 숨이 가빠지는 인영, 원가 말하려고 힘겹게 입을 떼다.

인영

(마지막 숨을 다해)

....그리워....

그대로 눈을 뜬 채 숨을 거두는 인영.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해하는 반백의 진혁.

페이드 아웃

121. 박 교수의 집 (밤 - 현재)

페이드 인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 등이 꺼지자 어둠에 잠기는 복도.
복도에서 나와 거실 등을 끄는 박 교수.
어둠에 잠기는 복도.
박 교수, 부엌 등을 끄자 어둠에 잠기는 집 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는 박 교수.

122. 박 교수의 집, 침실 (밤)

어두운 방 안, 스탠드만 켜져 있는 침대 위의 박 교수가 베개를 등에 받치고 앉아 무릎에 펼쳐놓은 낡은 앨범을 보고 있다.
한 장을 넘기자 젊은 시절 그랬던, 흐릿하게 번져 있는 아오이의 초상화가 끼어있다.
초상화를 집어 드는 박 교수,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다.
누군기에게 말하듯 입을 열기 시작한다.

박 교수

여보게....

그때 이후로 자네를 본적은 없지만....

....난 알아....

그때부터 자네가 항상 내 옆에 있었다는 걸 말아야....

박 교수, 눈시울이 붉어지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이때, 박 교수 다리 쪽에 덮여 있던 이불이 부풀어 오른다.
놀란 눈으로 이불 안을 쳐다보는 박 교수.
이불 안에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허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복을 입은 아오이가 있다
아오이가 허리를 펴자 스르르 벗겨지는 이불.
고개 숙인 아오이 귀신과 마주한 박 교수의 눈이 슬퍼 보인다.

박 교수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이렇게 날 외롭게 만들 거였으면....

....차라리 그때 날 데려가지 그랬나....

젖어 있던 박 교수의 눈에서 희한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말에 답하듯 천천히 고개를 드는 아오이.
한 맺힌 차가운 귀신의 얼굴이지만 젖은 눈동자 속엔 깊은 슬픔이 담겨있다
힘없이 떨어지는 박 교수의 손.
쥐고 있던 초상화가 스르르 빠져나와 나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진다.

123. 에필로그 (밤)

마치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대 유적처럼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안생병원 복도

버려진 냉장고처럼 문들이 열린 채 찌그러져 있는 시체 보관함이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시체실 풍경.
'쿠르릉' 하는 작은 울림과 함께 천정에서 작은 파편들과 오래된 먼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폐가처럼 병원 집기마다 거미줄이 내걸린 응급실 위로 점점 더 쏟아져 내리는 파편들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던 거미줄들이 힘없이 끊어져 내린다.

세월의 때가 뒤덮인 해부실 위로 더 많은 돌무더기들이 쏟아져 내리고 결국 화면은 암흑과 함께 적막으로
덮인다.

잠시의 정적을 깨며 '칙-' 하고 성냥 켜는 소리가 화면을 밝히면 초에 불을 붙이는 손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수인의 얼굴.

불이 붙은 실습생 1의 초가 화면에서 빠지면, 빈 초를 든 인영의 손이 들어온다

미소를 머금은 인영의 얼굴, 촛불에 비친 그 모습이 고풍적이다.

수인이 나눠준 촛불을 들고 걸어가는 인영 앞으로 어둠에 쌓인 긴 복도를 유령처럼 걸어가는 사람들과 일렁
이는 촛불이 천정에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기묘하다.

빈 초에 불을 붙이는 진혁의 손.

진혁의 초에 불을 붙여주는 수인.

촛불이 꺼질세라 손으로 가리고 입구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인영의 아름답지만 차가운 모습.

진혁의 초에 불을 붙여주고 입구 쪽을 쳐다보는 수인.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칠혹 같은 어둠에 쌓인, 터널처럼 긴 복도를 걸어가는 진혁의 모습이 마치 환영과도 같다.

가까워지는 입구.

페이드 아웃

- 終 -